

제10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다시 영혼 구원에 헌신하자”

美 남가주사랑의교회서 현지 시간 8~11일 일정으로 진행 중

제10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가 미국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현지 시간 지난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예수, 구원의 그 이름!”(Jesus No Other Name(행 4:12)이라는 주제로, 500여 명의 전세계 선교사가 축과 약 2000여 명의 남가주 성도들이 참여해 열리고 있다.

8일 저녁집회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들이 있어서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가 불들린 바 되어 가지 않나 생각된다”고 하면서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도전했다.

그는 “저는 한국에서 왔지만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예전에 기도를 하는데 한국교회는 심장이 멎었는데, 이를 놓고 다시 기도하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요인 중 하나는 북한이고, 다른 하나는 디아스포라라는 감동을 받았다”면서 “교회를 지키고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선교사들이 명령하면 한국교회는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부흥을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의 청사진 이 있어서 모이게 된 것”이라면서 “코로나 기간에 많은 한국교회와 문을 닫았지만, 지금 기도 모임이 형성되고 네트워크 가 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진행되고 있다. 성도들 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채워지리라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을 주셨는데 북한에 앞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질 줄 믿는다.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막힌 담을 헐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면서 “이 분단의 나라 조국에 수많은 기도가 쌓이고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적 통일을 이루실 줄 믿는다”고 했다.

황 목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 목사, 집사, 권사 등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의 삶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다. 성령께서 임하면 자



“한국 선교사들 너무 중요하다” 제10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예수, 구원의 그 이름!”(행 4:12)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사진은 대회장에서 참석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토마스 멩 기자



황덕영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튀르키예 서헬렌 선교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녀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전략

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들과 선교사들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간증을 한 튀르키예 서헬렌 선교사는 튀르키예에 자신이 난 후 구조 활동을 했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영어와 한국어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헌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아이들도 경계를 했지만, 우리가 끊임없는 사랑을 전했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면서 “그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의 진짜 주인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사의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열매를 볼 수가 없다”면서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던지 선교지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1988년 처음 시작된 이래 늘 사카이 휘튼대학교에서 개최됐으나 남가주에서는 지난 2016년 아주사퍼 시립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게 됐다. 통상 4년마다 개최해 오던 대회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열렸고, 앞으로 2년마다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열리게 된다. ▶관련기사7면 토마스 멩 기자

영 김美 의원 “의회가 탈북자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도록 할 것”

북한자유주간 맞아 미 의회에서 ‘탈북민들과의 라운드테이블’ 진행

제21차 북한자유주간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일(현지 시간) 오전 10시 30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주관으로 ‘탈북민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개최됐다.

소위원장인 영 김 연방하원의원은 이날 탈북자들을 초대해 자리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회가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이 증언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영 김 의원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받았던 고통과 탈북하는 과정, 또 이후의 정착까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였는지 상상하기 힘들지만, 항상 같은 고통을

나누면서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회에서 증언한 탈북자들은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하는 것만큼 북한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가족 9명을 목선에 태우고 탈북에 성공한 김이혁 씨,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영 씨는 자신들을 깨우친 것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였다고 강조했다.

김이혁 씨는 “북한 외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여전히 일가족을 데리고 북한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진실을 바로 알 수 있

도록 지속적인 정보 유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씨는 자신이 김일성종합대학교에 재학하던 시절에 이미 한류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학교 안에 생길 정도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았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북한 엘리트 집안에서 자라 김일성에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바꾼 것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었음을 증언했다.

또 김지영 씨는 이날 증언 중에 북한 인민들의 어려운 삶은 안중에도 없고 한국 부자들의 삶을 따라하기 원했던 북한 엘리트 계층 안의 이기심과 허영심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일성종합대 학생들은 충성분자들만 있는 줄 알았지만 한류에 열광하고 인민의 실질적인 삶에는 관심없는 그들의 모습이 저의 생각을 바꾸게 한

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김지영 씨는 “이미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고 있다. 종종 친척 중에 저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의 요청하는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강제복송이라는 만악의 사태를 대비해 독약을 준비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한 과정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하기도 했다. 김지영 씨는 “강제복송은 단순히 벌금을 내고 벌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잡혀가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라고 밝혔다.

여러 루트를 통해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을 해 왔던 장세윤 거레일통일연대 대표도 이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정보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북한의 많은 친



현지 시간 9일 미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탈북자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영 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우측 4번째)과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위해 참가한 탈북자들 및 수잔 솔티 자유북한연대 대표(우측 3번째)가 기념촬영을 했다. ©김대원 기자

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모두 자유민주 세상이 세우기 위해 뜻을 모았고 북한에

서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

Loving Jesus, Sharing Jesus!

지구촌교회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목장교회를 통해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더 나아가 평신도선교사로서 가정, 직장, 지역 공동체의 변화와 지구촌 선교네트워크 확장에 헌신할 것입니다.

“기독일보 창립 13주년을 축하합니다.”

지구촌교회
GLOBAL MISSION CHURCH

수자채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 1로 48번길 48(신봉동) T 031-264-9191

원로목사 이동원 담임목사 최성은

필그림하우스
경기도 가평군 북면 기회로 1862

GMV채플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74번길 19

경기대채플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구리지구촌채플
구리시 이문안로 86 5-6층

www.jiguchon.or.kr

“확대된 선교 개념, 지나친 범위 확대로 본질·핵심 흐릿해져”

지구촌선교연구원·중동성서신학원 2024 선교 포럼, ‘넓어진 선교개념 평가와 선교의 방향’ 주제로 열려

지구촌선교연구원(원장 안승오 교수·중동성서신학원(원장 김병호 목사)이 최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넓어진 선교개념 평가와 선교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4 선교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1부 인사 및 기도, 2부 선교 포럼, 3부 「선교와 교회」 출판 감사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인사 및 기도는 김삼식 목사(산동교회 담임, 본회이사)의 사회로, 장승천 이사장(반석교회 담임)의 환영사, 김홍천 명예이사장(노암교회 원로)의 개회기도, 김은호 목사(지구촌선교연구원 이사)의 광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인사말을 전한 장승천 이사장은 “선교의 목표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선교의 방법은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여러 가지로 해 볼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전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그리고 복음을 수호하고 잘 전파하는 것에 에큐메니컬이 있다. 그러나 주어는 두 가지를 가질 수 없다. 복음 선교를 위해 협력하여 함께 잘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2부 선교 포럼은 △김승오 교수(한국성서대)가 ‘넓어진 선교개념 출현에 대한 고찰’ △김승학 교수(안동교회 담임)

가 ‘복회현장에서 본 선교와 봉사의 관계’ △안승오 교수(영남신대 선교신학)가 ‘예수의 가르침에서 본 확대된 선교개념 평가’ △배춘섭 교수(총신대 선교신학)가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총체주의에 관한 신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각자 발표했다.

◆복음의 선포 소홀히 하는 섬김, 경계해야

김승오 교수는 “신약성경을 통해 바울 선교의 목표를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첫째는 복음의 선포를 통한 영혼 구원이며, 둘째는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셋째는 제자화이며, 넷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며, 다섯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다.

이어 “20세기 개신교 내부에서 일어난 주요한 두 가지의 대표적 선교 운동은 복음주의운동과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며 “신학 또한 복음주의 신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로잔 선교 신학과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이 두 축을 이루며 세계선교를 주도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에큐메니컬 선교가 해온 것처럼 복음 선포를 통한 세상 복음화보다 좋은 세상 만들기(정치, 사회, 인종, 환



(왼쪽부터) 김병호 목사, 김승오 교수, 김승학 목사, 안승오 교수, 배춘섭 교수 ©장요한 기자

경, 빈곤, 차별철폐, 화해, 평화증진)에 초점을 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방주가 아니라 사회개혁을 하는 NGO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은 그 존재 자체로 선교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엄청난 선교적 사명이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회복시켜 나갈 사명이 있다”고 했다.

또한 “로잔운동은 1948년 세계 교회협의회가 태동할 때 연합하여 복음화를 이루고자 했지만, 그 목표가 시간이 흐르면서 인본주의로 흘러간 실수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도와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다”며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복음 선포의 중요한 요소며 섬김 없는 선포 역시 설득력이 없고 복음을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의 선포

를 소홀히 하는 섬김은 더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대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간은 비인간화시키는 진정한 원인은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에 있기보다 단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라는 사실”이라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비인간화가 되었는데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으며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간에게 있어 최악의 단절, 분리, 격리, 고립은 인간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분리이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 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참된 인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복음 없는 살림은 가장된 살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살림은 위선적 살림

이어 두 번째로 발제한 김승학 목사는 “고전적인 선교 개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를 유일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는 회심을 목표로 한다”며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의 문을 연 학자 호켄다이크는 하나님의 선교개념을 해석하면서 이 땅 위에 살림을 가져오는 것을 선교로 이해한다. 그는 선교의 목적을 평화와 공존의 살림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복음이 없는 살림은 가장된 살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살림은 위선적 살림”이라며 “열령 세상의 살림이 깨진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을”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교는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 사실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부인해선 안 된다”며 “이천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완전한 교회, 그리스도인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능력 있는 복음전파의 도구로 사용해 오셨다. 복음을 슬기롭게, 그러나 담대히 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세상 행복하게 하는 모든 활동, 다 선교에 포함하는 넓어진 선교 개념 ‘확대된 선교 개념’



안승오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안승오 교수는 “전통적 선교 개념은 상당히 단순하고 명료한 경향이 있었다. 즉,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활동이었다”며 “1952년에 태동한 Missio Dei 개념 이후로 선교는 세상에 살림을 이루는 모든 활동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즉 선교 개념 속에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선교 개념을 ‘확대된 선교 개념’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며 “즉 확대된 선교 개념이란 전통적인 의미의 단순 명료한 선교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선교에 포함하는 넓어진 선교 개념”이라고 했다.

안 교수는 “확대된 선교 개념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다 선교에 포함하려는 경향 속에서 선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선교의 본질과 핵심이 흐릿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또, 확대된 선교 개념의 주요 배경이 된 하나님의 선교 개념, 하나님 나라 이해, 새로운 구원 개념 등을 예수의 말씀에 비추어 분석해 본 결과 이 개념들을 예수의 가르침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거나 왜곡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확대된 선교 개념은 선교에서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과 그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 해야 할 부수적인 사역을 다 포함하여 본질로 생각함으로써 말미암아 점차 강조되어야 할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며 “물론 이러한 관점은 지나치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의 해석으로 보일 수 있다. 선교의 개념을 생각할 때 세계의 변화에 따른 폭넓은 선교 방식에 대한 열린 자세와 선교하는 자의 높은 윤리성 등에 대한 깊은 고뇌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선교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2천 년 역사를 볼 때 예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진 경우는 대부분 인간의 합리성과 현실성 등을 말씀보다 앞세운 상황에서 발생하며, 이런 경우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서고 선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런 경우 매우 매력적이고 설득력은 있어 보이지만 본질과 핵심을 상실할

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거의 없는 빈 수레와 같은 교회로 전략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점에서 지금의 확대된 선교 개념이 과연 예수의 가르침과 맞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했다.

◆교회는 총체주의보다 우선주의라는 복음전도 위한 선교적 사명 감당해야

마지막 네 번째로 발제한 배춘섭 교수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총체주의를 비평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케리그마적 관점에서 교회의 선교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 작정에 따라 택한 백성인 교회를 통해 사역을 펼쳐나가신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작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를 온 세상에 알릴 선교적 목적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선교의 구원론적 관점이다. 교회 선교는 파괴된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며 “교회의 본질적 사역은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있다. 이런 점에서 총체적 사역들은 교회의 복음 전도보다 우위일 수 없고, 동등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한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 관점”이라며 “복음전도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한결같이 지향해 온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교회는 불가사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인 이 세상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끝으로 배 교수는 “교회는 총체주의보다 우선주의라는 신학적 입장에서 복음전도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계획은 죄와 세상 가운데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 선교의 목적은 복음 전도이기에 이를 위해 교회는 총체적 선교사역들을 마땅히 감당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질의응답 순서 이후 3부 출판 감사 순서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출판 감사 순서에서는 안승오 교수가 경과보고를 하고, 김순미 장로(전 총회 부총회장, 지구촌선교연구원 교무)가 축사를 전했다.

한편, 지구촌선교연구원은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 연구와 훈련을 위하여 2013년 1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11년째 11월 11일 다양한 선교 △선교 전문 저널 「선교와 교회」 발행 △총회세계 선교대학, 선교세미나, 선교포럼 시행 △선교 현지 목회자 훈련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해외 선교사 지원(미얀마, 볼리비아, 마다가스카르, 일본) 등을 실시하여 세계선교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 장요한 기자

우리는 간다.

기술이 닿지 않는 곳까지

누구보다 먼저 진심의 힘으로
생명을 구하는 곳 어디든





후원 및 참여문의 ☎ 1577-8179



대한적십자사

장경동·이읍 목사, 기침 차기 총회장 예비후보 등록

선관위 총회 의장단·총무 예비 후보 등록 진행
총무 예비후보엔 현 총무 김일업 목사 단독 등록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침) 제114차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성희 목사, 선관위)가 최근 여의도총회빌딩 13층 회의실에서 제114차 총회 의장단 선거 예비등록을 진행했다.

이날 예비등록은 장경동 목사(중문교회)와 이읍 목사(대전은포교회)가 총회장 예비후보에, 현재 총회장 직무대행·부총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총무 김일업 목사가 총무 예비후보에 입후보했다.

후보자들은 예비등록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한 후 선관위로부터 선거 관련 교육을 받았다. 선관위는 김일업 총무의 경우 총무 선거를 위해 현직을 사퇴할 경우 발생할 행정 공백에 문제는 선출직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 총회 현장에서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 원칙은 커피 한 잔도 금지하기로 했으나 향후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투표 방식은 전자 투표의 경우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수기로 진행한다.

총회 선거 일정은 7월 27일 입후보 등록공고가 실행되며 정기총회 개최 20일 전인 8월 19일 본등록을 실시한다. 의장단 및 총무 선거일은 9월 10일이다.

김진영 기자



왼쪽 두 번째가 김일업 총무, 세 번째가 이읍 목사, 오른쪽 세 번째가 장경동 목사. ©기침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아 가르치면, 제자훈련이 삶으로 이어져”

[힘내라! 한국교회 시즌3] 뉴크리에이션교회 조용식 목사

기독교일보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연중 기획 인터뷰 ‘힘내라! 한국교회 시즌3’을 진행한다. 일곱 번째 주인공은 서울시 관악구 소재 뉴크리에이션교회 담임 조용식 목사(사진). 조 목사는 제자훈련에 집중하는 목회자다. 책 <구원과 새 생명의 정체성>(좋은군사)을 발간해 제자훈련 교재로 활용하고 목회자들 상대로 강연도 하고 있다. 교회표어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며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이다. 그는 “팀원들에게 강조하는 점은 제자훈련에서 배운 내용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 가르친다면 제자훈련의 내용이 생활화될 수 있다”고 했다.

“목회자가 된 계기는?”
 “1984년도 대학생 때 군 생활 중 외박을 나와 학교에서 자판에서 커피를 뽑다가 후배를 만나 복음을 들었다. 그때 예수님을 믿었다. 은혜를 많이 받아 전도를 많이 했다. 이후 대기업에서 디자이너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다. 그러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선교 대신 목회를 하라고 하셨다. 목회 여정 동안 성도들을 제자로 삼는 훈련에 대한 주제에 천착하게 됐고, 이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구원과 새 생명의 정체성>(좋은군사)이라는 책을 썼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개혁목회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
 “1998년도 1월 외환위기 당시 믿는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다. 그때 사람들을 제자 삼는 데 집중했다. 2005년부터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을 대상으로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면서 총 8번 정도 교회를 이사했다. 지난해 11월 말 서울대 인근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 주변에 뉴크리에이션 교회를 세워 총 30여 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다. 교회표어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며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이다.”

“제자훈련에 집중하는 이유?”
 “현대인은 권위를 무시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한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스타일대로 교회 생활을 하기 쉽다. 예수님을 믿은 즉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삼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후 5장 17절)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가르치지 않으면 옛사람의 모습대로 신앙 생활을 하기 쉽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

“참된 제자의 표징은 무엇인가?”
 “어려 가지가 있다. 참된 제자의 특징적 표징 중 하나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고난받을 각오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받으러 오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자기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막 8장 34절) 이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므로 사는 삶이다. 이 삶에는 고난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겠노라고 말했다. 성도들에게 고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을 가르쳐준다면 그들은 신앙 안에서 강



뉴크리에이션교회 조용식 목사 ©노형구 기자

해질 것이다.”
“뉴크리에이션 교회의 제자훈련 특징은?”
 “<구원과 새 생명의 정체성>(좋은군사)을 갖고 제자훈련을 이행하고 있다. 소그룹에서 이 교재로 서로 토론한다는 것이다. 주입식 교육을 탈피했다. 팀원들에게 강조하는 점은 제자훈련에서 배운 내용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 가르친다면 제자훈련의 내용이 생활화될 수 있다.”

“제자훈련에서 주로 강조하는 내용은?”
 “겸손과 순종이다. 교만은 인간의 본질이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과 행동에서 다툼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 순종은 권위자에 대한 복종이다.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흐르는 아담의 반역이 깨어지고 삶의 질서가 생긴다. 겸손한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다.”

“한국교회 일각에선 제자훈련이 참된 성도를 만들어 내는 데 실패했다며 제자훈련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제자훈련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초보적 도반 전했기 때문이다.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장 17절)이다. 이러한 새생명의 가운데서 더욱 강건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참된 제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부여받았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왕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다면 사탄이 왕 노릇을 한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한다는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하는 것이 제자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인지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탄을 제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사탄이 가로막고 훔쳐 가는 경우가 많다.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와 사탄을 쫓아내고 결박하여 피해자로 만든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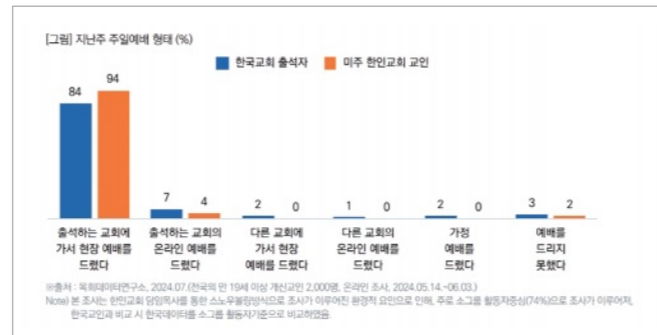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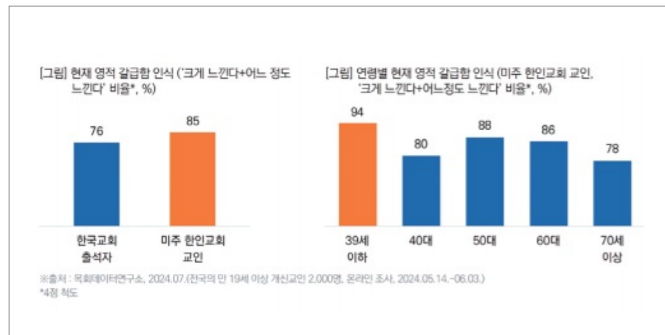
“그 일례가 궁금하다.”
 “내 자녀가 중학교 때 학폭에 시달렸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자라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됐다. 또 학폭이 없어진 좋은 학교가 됐다.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모두 권세로 사탄을 통제할 수 있다.”

“권세로 사탄을 통제하는 방법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과 성령로서의 자각 가운데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성찬 등 영적 생명을 공급받아야 은혜 가운데서 더욱 강건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안 될 수 있지만 될 때까지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며 축복하고 평화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받으며 병을 고치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말에나 행동이나 모든 일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강한 영적 장군이 돼야 한다.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 지역사회-구-도사나라 전체로까지 확장한다. 이것이 계속되면 하나님 나라까지로 확장된다. 이 땅에서 왕노릇을 못하면 하늘에서도 왕노릇을 못한다.”

“목사님에게 복음이란?”
 “내 옛사람을 죽고 예수로 새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노형구 기자

미주 한인교회, 한국보다 현장예배 참석률 높고 갈급함도 커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한인 개신교인 등 대상 현지 조사 소개

미주 한인교회의 현장예배 참석률이 한국보다 높고, 교인들의 영적 갈급함도 한국교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한인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선 전도에 더 열정을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CTS America(뉴욕 후리신제일교회 후원)·MICA·AEU 미성대학교가 지난해와 올해 미주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69명과 미주 한인교회 영아(EM) 사역자 및 영어 사역 경험자 8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주요 결과를 최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 중 대다수인 94%는 지난주 주일예배를 ‘출석교회 현장예배’로 느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예배’는 4%에 불과했다.

영적 갈급함에 있어서도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대부분인 85%는 ‘현재 갈급함을 느낀다(크게+어느 정도)’고 답했는데, 특히 39세 이하 젊은 층에서 타 연령대 대비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교회 만족도 역시 미주 한인교회 교인이 한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데연은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경우 10명 중 7명이 현재 출석교회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고, 불만족 비율은 12%로 조사됐다”며 “반면 한국교회 출석자는 66%가

출석교회에 만족하고 있었고, 미주 한인교회 교인보다는 낮은 비율인 7%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고 했다.

또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은 코로나 이전 대비 예배 참여도(증가 29% 감소 12%), 교회 소속감(증가 35% 감소 15%), 소그룹 참여도(증가 29% 감소 17%)에서 증가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아울러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졌다’는 비율이 40%로, 30%로 나타난 한국교회 출석자보다 많았다고 목데연은 전했다.

그러나 신앙활동의 다양성에 있어선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보다 떨어졌다. 목데연은 “한국교회 성도 대비 미주 한인교회 신앙활동이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시청 등 다양한 신앙활동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신앙나눔/상담, 기독교 방송 시청/청취, 기독교 모임 참석 활동에서 두 그룹간 큰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목데연은 “한국 교인과 비교해보면,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은 한국 교인들보다 신앙 활동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신앙 깊이는 코로나 이후 오히려 더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밖에 미주 한인교회에서의 한국어 사역(KM)에 대해 EM 사역자의 39%, 한

인교회 교인의 절반 이상인 54%가 10년 후 KM 사역이 쇠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20% 정도였다.

한인교회의 쇠퇴를 예상한 교인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이민자/유학생 감소’가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회가 시대변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함’ 21%, ‘이민교회 교인의 신앙 약화’ 20%, ‘세속화’ 18% 등의 순이었다.

10년 후 EM 사역에 대해선 EM 사역자의 경우 ‘성장할 것’ 같다가 65%로 가장 많았고, ‘지금 수준 유지’ 15%, ‘쇠퇴할 것’ 8% 순이었다. 반면 한인교회 교인은 ‘쇠퇴할 것’이 38%로 ‘성장할 것’ 35%와 비슷했다.

목데연은 “KM 사역의 미래 예측과 비교해보면 EM 사역이 상대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높았다”고 덧붙였다.

목데연은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은 그들 교회가 쇠퇴할 것 같다는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이민자/유학생 감소 요인이 컸다. 그러나 교인들은 쇠퇴 이유를 내부 요인으로 돌렸다”며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의 세속화, 교인의 신앙 약화를 이유로 꼽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은 한인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요인으로 인식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미주 한인교회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나의 내일에 확신이 생겼다

삼성생명FC

잘할 수 있을까?

삼성생명을 만났을 때,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따뜻하고 믿음직한 동료들

힘이 되는 든든한 지원

모두 다 함께 성장하니까

삼성생명 FC 지원상담문의

프리미엄 고객사랑 서비스 | 코칭 매니저(CM) | 사랑On

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 “유신진화론의 신학적 문제 우려”

입장문 발표... “기독교대한성경교회 창조신학에 위배”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대표 회장 양기성 박사, 이하 웨협)가 ‘유신진화론의 신학적 문제’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최근 발표했다.

웨협은 이 입장문에서 “유신진화론은 ‘유신론’과 ‘진화론’을 합친 용어로, 세상이 오랜 자연적 진화의 과정을 통해 생겨났다는 비성경적인 주장”이라며 “웨슬리언교단 신학대학교 및 북음주의 신학대학교는 큰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첫째, 유신진화론은 기독교대한성경교회의 창조신학에 위배된다”며 “기독교대한성경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히 좋게(창 1:31) 창조하셨고, 창조 시에는 세상에 죽음이 없었으나, 첫 사람 아담의 ‘죄의 삯’(롬 6:23)으로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음을 성경대로 믿고 선포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기독교대한성경교회 헌법 제2장, 제4조 1항, 제15조, 제21조에 명시되어 있고, 교단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믿고 가르쳐 온 성경적 진리”라며 “또 사중복음 중 ‘중생은 죄의 삯은 사망’이기에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야 함을 선포한다면, ‘재림은 죄의 삯으로 찾아온 육체적 죽음에서의 육체적 부활’을 선포한다. 그렇다면 사중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온 모든 목회자와 신학자는 기

독교대한성경교회의 창조신학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웨협은 “그러나 유신진화론은 본래 세상은 혼돈의 상태에서 진화를 통해 점점 좋아졌고, 무수한 생명이 죽어가는 과정을 거쳐 단세포 생물이 진화해 인류가 탄생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로써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죄의 삯’ 사망임을 부정하며, 아담이 첫 번째 실존 인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및 사도들의 가르침(마 19:4, 행 17:26, 롬 5:12-19, 고전 15:21-22, 45-47)을 부정한다.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에 기초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구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기성 교단 헌법 제3장 제5조 1항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영감에 의하여 기록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학설을 배격하며, 2항은 ‘성경의 목시됨을 부인하거나 비평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그러나 유신진화론은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성경의 창조기사는 고대 근동 창조 신화의 개작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길고 느린 진화의 과정을 주도하셨다고 주장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헌법과 사중복음에

근거해 기독교대한성경교회의 창조신학을 선포해 온 성경교단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양성소인 서울신학대학교가 유신진화론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독교대한성경교회와 서울신학대학교는 교단의 목회자, 교수, 신학생, 성도가 공히 따라야 할 창조신학의 뼈대와 기준을 더 명확히 제시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 최근 ‘유신진화론’ 논란을 외부로 확산시킨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최근 유신진화론을 옹호하는 저서, 입장문, 성명서를 발표한 일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유신진화론이 지닌 ‘신학적’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관심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 우리는 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지 못한, 부적절한 태도로 생각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웨협은 “유신진화론을 ‘신학’이 아닌 ‘과학’의 문제로 포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유신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문제제기를 의도적으로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유신진화론에 대한 문제제기의 핵심은 ‘과학’이 아닌 ‘신학’의 문제다. 이를 감추고 의도적으로 논점을 ‘창조과학’으로 돌려 논점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다분히 정치적인 뿐 아니라 솔직하지 못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 전통이 가르쳐 온 ‘계속적 창조’는 진화가 아니”라며 “아우구스티누스, 마르틴 루터, 17세기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 교의학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문자적인 의미로 믿었으며, ‘계속적 창조’를 말한 것은, 새로운 종의 생물이 계속 생겨나는 진화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태초의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 계속적으로 섭리하심을 창조에 빚어 표현한 것이다. 이를 진화로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을 왜곡하는 것으로, 학문의 방법이 올바르게 못했거나, 만약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 학문적 태도가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심대한 유감”이라고 했다.

또한 “유신진화론은 기독교대한성경교회의 창조신학을 계승하지 않는다”며 “유신진화론을 옹호하는 최근의 한 논문은 이명직 목사, 조종남 박사 등의 목회자와 신학자가 현대과학에 열린 태도를 보인 것

을 마치 그분들이 유신진화론에 옹호적이었던 것처럼 왜곡한다. 최근의 유신진화론을 옹호하는 여러 입장문과 성명서들은 그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대한성경교회의 창조신학에 대해 기초적인 조사를 해보았는지 염려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기독교대한성경교회와 웨슬리언교회의 창조신학을 계승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과학에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창조의 하루가 24시간인지 한 시대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히 좋게 창조하셨고, 창조 시에는 죽음이 없었는데, 인간의 ‘죄의 삯’으로 사망이 찾아왔음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의 차이”라고 했다.

웨협은 “기독교대한성경교회와 웨슬리언교단의 창조신학 전통은 죄의 삯이 사망임을 분명히 인정한다. 그런데 죄의 삯이 사망임을 부인하는 유신진화론이 어떻

게 그것을 계승한 것일 수 있는가? 기독교대한성경교회 창조신학을 유신진화에 기초한 ‘창조신학’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성경교단에 속한 신학자와 목회자로서의 진실성과 학문적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유신진화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기독교대한성경교회와 웨슬리언교단 목회자와 신학자는 웨슬리언교단의 헌법과 창조신학에 위배되는 ‘신학설’과 비평적 ‘해설’을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학문의 자유가 교단이 지켜온 핵심교리를 부정할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교단 목회자 양성기관인 신학교 교수라면 마땅히 기독교대한성경교회의 헌법과 웨슬리언교단에 표명된 창조신학을 절대 믿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성결대, 나사렛대·서울신대와 연합대학 해외봉사 성료

6박 7일간 메콩 어린이집 및 약속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 문화 알리기 및 교육 봉사 진행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장요한 기자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는 나사렛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와 협력하여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성연 연합대학 해외봉사’ 활동을 성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대학은 한국성경교회에 의해 설립된 대학들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6박 7일 동안 태국 치앙마이 메콩 어린이집과 약속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해외봉사에는 세 학교의 해외봉사단 44명이 참여해 태국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미술, 체육 등 다양한 교육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학생들은 강당에서 전통놀이, 부채춤, 태권도, K-pop 공연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여 현지 어린이들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전공과 재능을 활용하여 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번 봉사에 참가한 성결대학교 해외봉사단 회장 김희주 학생은 “치앙마이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사랑을 담은 미소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에 지원했는데, 막상 가 보니 현지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오히려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감사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함께한 성결단원들과 잘 협력하여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기쁘고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성결대학교는 앞으로도 한성연 연합 해외봉사를 지속 운영하여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학생들에게 글로벌



한성연 연합대학 해외봉사 기념 사진 ©성결대



해외봉사 진행 사진 ©성결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 개최한다

‘K-컬처와 기독교교육’을 주제로, 온라인(zoom)으로 개최



한국기독교교육학회(회장 장신근 박사, 장신대 교수)가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K-컬처와 기독교교육’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K-컬처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와 연관성을 탐색하며, 이에 대응하는 기독교교육의 방향과 실천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 발표에는 ▲성결대 윤영훈 박사가 ‘K-컬처와 기독교교육: K-Pop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분과발표에서는 9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된다. ▲기초이론분과-영성교육분과에

서는 안정도(장신대)서재덕(호남신대) 박사가 ‘K-Pop에 나타난 광야 이미지’ ▲교회교육분과-여성교육분과에서는 박향숙(서울신대) 박사가 ‘교회 교사교육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장윤석(연세대) 박사가 ‘관계 중심 기독교 청소년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성인교육분과-통일교육분과에서는 고수진(계명대) 박사가 ‘K-Culture 시대, 기독교인의 정체감 확립을 지원하는 성인교리교육, 김재현(계명대) 박사가 ‘기독교적 죽음 교양 교육 방안 제시’ ▲교육과정 및 방법분과-교육심리 및 상담분과에서는 이성아(한국성서대) 박사가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최신 연구 경향 분석, 남선우(열림교회) 박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회교육 사례 연구’ ▲학교교육분과-신학자분과에서는 강영택(우석대) 박사가 ‘김약연과 기독교적

마을교육공동체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특별히 이번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온라인 개최의 장점을 살려 국외 학자의 학술발표(학교교육분과)도 진행된다. ▲다인안(루벤대) 박사가 ‘Context and Challenges of the Belgian RE Course’로 발표하며, 손문 박사(연세대)가 통역한다. 다인안 박사의 발표는 벨기에와의 시차를 고려하여 학술대회 당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한국기독교교육학회의 2024년 하계학술대회는 비대면으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홈페이지(www.kscre.org)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총무 주연수 박사(부산신대, 010-9080-2373, kscre34@daum.net)에게 하면 된다. 장요한 기자

2024.6.3.Mon — 8.11.Sun

더 행복한 공모전

공모내용

참여자 육아를 하고 있는 전국민

공모부문 영상, 수기(개인 부문), 수기(회사 자랑)

공모주제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고마웠던 일들, 행복했던 순간들! 가정, 사회에서 생긴 재미있는 육아 에피소드 회사에서 생긴 감동적인 에피소드 또는 육아 지원제도로 든든했던 이야기 등

공모일정 접수 기간 6월 3일(월) ~ 8월 11일(일) 수상자 발표 9월 3일(화) 예정 (개별통보) 시상식 일정 10월 중 예정

접수방법 yuk_a@withculture.com

1. <https://blog.naver.com/withcult/223464847401> 혹은 QR코드로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자세한 사항 확인 후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2. 참가 신청서 작성 후 공모 신청자와 함께 이메일(yuk_a@withculture.com)로 접수

시상내역 총 상금 1,000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구분	영상	수기(개인)	수기(회사자랑)
전체 대상	1인 300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최우수상	100만원	80만원	80만원
우수상	70만원	40만원	40만원
장려상	20만원	10만원	10만원

*수기(회사자랑)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추가 증정 사항 소속된 회사에 커피차를 보내 드립니다. (단 '전체 대상' 이 수기 회사자랑일 경우 대상 수상자에게 증정)

문의처 더행복한공모전 운영사무국
이메일 yuk_a_inquiry@withculture.com
전화 번호 070-7780-4490

주최·주관

조선일보

CULTURE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교회 미래와 다음세대 위해 평신도 교육사 양성 필요”

기장, 2024년 제108회 총회 교육정책협의회 개최

한국기독교총회(총회장 전상건 목사, 이하 기장)가 최근 예담교회(담임 서평원 목사)에서 2024년 제108회 총회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예배, 취지 설명,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진재성 목사(총회 교육위원장의 인도로 드러졌으며 최우진 목사(총회 교육위원장)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어 전상건 목사가 “변화하는 신앙교육의 틀(신명기 6:4-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전 목사는 “오늘 이 시대의 신앙교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이 변화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다고 본다. 오늘 모임을 통해 총회에서 논의 되었던 평신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적 제도적 틀을 갖추면서 갈 방향을 좁히는데 힘쓰고 있다고 타 교단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면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은 매우 어렵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교단에 상관 없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어린이와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으며 이것은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장을 어떻게든 열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며 우리가 평생 들어야 할 말씀이며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다음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전하는 교육자를 양성하며 다음세대를 어떻게 교회에 인도하며 어떻게 성경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 자리가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을 연구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김진아 목사(총회 교육국장)가 교육정책협의회 취지를 설명했다. 김 목사는 “총회 교육위원회는 평신도 교회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총회가 결의한 교육 과정을 모두 수료한 경우 교육전문인으로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지난 108회 총회에 교육사제도를 현의했다. 총회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해 1년 동안 제도화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교육위원회와 총회 교육국은 평신도 교회교육전문가 양성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제도에 대해 타교단의 사례를 공유하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교육전문가 양성의 제도를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명옥 목사(예장 통합 총회교육훈련처 총무)가 “평신도 교회

교육전문가 양성의 과제와 교육사 제도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목사는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란 지역교회의 인정을 받은 평신도가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교회학교 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평신도 교회학교를 세우고 이를 정착시키고 관리하는 총체적 책임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며 “총회교육자원은 교단 산하 교회 중 50% 이상의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회학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이에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 제도를 신설하고 제99회기에 총회 교육자본부와 교회성장운동지원본부가 함께 교회학교 세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를 배출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는 교회학교 현장의 사역자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총회 교육훈련처와 부산장신대학교 평신도 신학원, 전 남지역 3개 노회가 협력하여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를 양성하여 교회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총회 교육자본부는 교육방송을 통한 예배와 설교를 송출하여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를 통한 교회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 매뉴얼이 필요하여 제108회기 위원회를 구성해 매뉴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는 18세기 말 평신도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 244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주일학교는 평신도가 교사가 되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신도 교육자를 꾸준히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앞으로의 한국교회에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평신도 교육자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나아가면 교회 교육 사제도가 더 잘 정착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영주 원장(예장 통합 총회교육개발원)이 교육사 및 평신도 교회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예장 합동 교단 사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노 원장은 “코로나 19 상황을 겪으며 한국교회는 교인 수 감소를 경험했다. 저출산을 비롯한 한국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수축의 방향으로 접어들었다. 미래에 관한 불투명한 전망과 더불어 목회직에 관한 사명감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한국교회 교육의 책임지고 있는 교육 목사, 교육 전도사의 감소 현상은 핵심 사역자의 이탈이라는 면에서 매우 심각한 교육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10명 중 4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때 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며 “해방 이전 장로교회들은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고 교육했으며 해방 이



한국기독교총회(총회)가 예담교회에서 2024년 제108회 총회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최승연 기자

후 교단적인 구분하에 교육이 시작되었다. 합동 교단에서는 1964년 한국기독교 교육연구회를 조직하고 교육사역을 정비하게 되었다. 이후 합동은 꾸준히 성경공부 교재 개발을 하면서 <하나 바이블>을 발간하게 되었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 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사를 세워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임 목사의 목회철학과 연계된 교회 교육 전장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총회 교육자본부는 교육방송을 통한 예배와 설교를 송출하여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를 통한 교회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 매뉴얼이 필요하여 제108회기 위원회를 구성해 매뉴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밀하고 체계적인 목회와 교회교육 생태계 복원을 위해 평신도 사역과 리더십을 개발해야 한다. 평신도 교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하이테크 사회에 하이 터치로 미래 세대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심혈을 기울일 때 미래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고 견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재성 목사(총회 교육위원장)가 ‘교육사 제도 마련을 위한 총회교육위원회 진행결과 및 결과 보고’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진 목사는 “총회 교육위원회는 부교역자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결손과 교회학교 예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자 평신도 교회교육전문가를 양성하여 교회의 교육사역을 돕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지난 103회 총회에 현의했다. 현의안이 통과되면서 ‘교회교육 전문가과정’이 시작되었다”며 “교회교육 전문가과정은 평신도 교회교육 전문인의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교회교육 현장에서 요청되는 실제적인 주제들을 선정하여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그리고 전문과정의 3단계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다.

그는 “교회교육전문가과정의 교수진은 기독교 교육 관련 및 관련 주제 전공자들과 교회교육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육전문인들로 구성돼 있다. 이 과정은 기본, 심화, 전문과정 모두 10개 강의로 이뤄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1주에 2강의를 진행하여 5주 동안 한 과정을 마치게 된다”며 “현재까지 노회 교육부와 협력을 통해 8차에 걸쳐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이 다양한 노회들에서 진행되었다. 교육 일정이 확정되면 사전에 교수진 회의를 걸쳐 노회의 상황과 강의 진행 시 요청사항을 공유하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맞춤형으로 진행했으며 노회 교육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하반기부터 교회교육전문가과정을 진행하며 교육을 수료한 이후 활동과 자격을 포함한 제도적 틀거리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총회 교육위원회는 신도 교육전문가 양성



전상건 목사(기장 총회장)가 변화하는 신앙교육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승연 기자



김진아 목사(총회 교육국장)가 교육정책협의회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최승연 기자



김명옥 목사(예장 통합 총회교육훈련처 총무) ©최승연 기자



노영주 원장(예장 통합 총회교육개발원) ©최승연 기자



진재성 목사(총회 교육위원장) ©최승연 기자

을 위해 총회가 결의한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경우 교육전문인으로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지난 108회 총회에 교육사 제도를 현의했다. 총회는 교육전문 사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제도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 논의가 단적으로 공감대를 넓히고 보다 밀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1년 동안 제도화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을 결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사제도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교육전문 사역자로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일정 인원의 수료생이 모이게 되면 정해진 기간에 의무이수 또는 집중교육의 형태로 ‘계속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되어야 하겠다. 교회교육전문 사역자로 훈련받아 목회자와 동역하는 교육사를 길러내려는 교단적인 노력이 부교역자 수급의 어려움으로 합쳐워하고 있는 교회에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MMF 자금 운용 7년 연속 수탁 업계 1위

머니마켓 ETF도 역시, 하나입니다

안정적이고 유동적인 여투자금 운용을 위한 초단기채 ETF

하나 1Q 원큐머니마켓액티브

종목코드 : 479080

MMF 수탁 업계 1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말기준 MMF 수탁 1등 (금융투자협회)

국내 최상위권 MMF 운용사
수탁 기준, 18조원 규모 MMF 운용 (금융투자협회, 23년 12월 말 기준)

하나자산운용

※ 이 금융투자상품은 해당투자자에게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금의 손실(0~100%)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해당투자금과 관련하여 투자금의 변동·수급 및 매매행위 등에 따라 해당투자금의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의 발생 시 비환급성, 또는 분할 지급 등 불확실한 지급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액의 원금은 (간접투자상품에 해당) 해당투자금에 상응하는 금액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100원 투자금액에 대한 평균투자수익률(예외)은 투자당연평균 수익률(예외)은 0.0509% (연평균)이며, 손실률: 0.0509%, 수익률: 0.0509%, 수익률: 0.0509%, 수익률: 0.0509% 등 관련정보는 0.0009% 증권거래법, 7차비행이 추가 가능 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번호 제 24-022172(2024.06.10 - 2025.06.09)

우원식 국회의장, 김종생 NCKK 총무 예방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총무 김종생 목사를 예방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대학시절 한국기독교학생회(IVF) 활동을 했다. 기독교 신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말기유에서 태어나 어려운 자들을 도우신 그분을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종생 총무는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라고 했다. 그는 “올해 100주년을 맞은 NCKK의 그간 사명은 약자와의 동행이었다”며 “십자가의 자리에서 순해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국회의장님이 처한 정황이 쉽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NCKK 총무 김종생 목사(왼쪽). ©노형구 기자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 안에서 겪는 여러 갈등으로 인해 NCKK 등 교계 의견을 듣고자 찾아왔다”고 하자, 김 총무는 “갈등이 있을 때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숙의할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위기관리가 중요한 과제다. 원칙 세 가지가 견지하려 한다”며 “첫째, 싸우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헌법과 국회법 같은 우리 사회가 정한 틀은 지켜야 한다. 둘째, 국민 가운데는 민심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이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마 갈등의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어 “첫째, 대한민국은 현재 복잡한 사회로서 한 가지 이념과 가치로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다양한 가치들이 모여 토론해야 한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베트남서 징역 90년 선고 받은 기독교인 11명 실종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 감시 단체 ICC 보고

베트남에서 종교 활동으로 총 90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11명의 기독교인들이 실종됨에 따라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체포된 이들은 6명의 개신교인과 5명의 가톨릭 신자로, 베트남 교도소에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 감시 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에 따르면, 6명의 개신교인은 데가르 개신교(Degar Protestantism)와 관련이 있으며, 가톨릭 신자 5명은 하몬 가톨릭교회(Ha Mon Catholic Church)에 속해 있다. 두 종교 운동은 베트남 공산당으로부터

터 공식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당국은 두 단체가 "국가 통합 정책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자주 표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개신교 신자인 로 마 플라, 시우 흐롬, 르마 블로안, 르마 킴은 데가르 개신교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

한편, 송 A. 쿠아는 신앙 포기를 거부한 뒤 '삼립 벌채'라는 명목으로 체포되었고, Y. 흐람 크파는 교회 폐쇄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문 A. 쿠인, A. 틱 룬, 딘 쿠 등 5명의 가톨릭 신자들은 하몬 가톨릭교회와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데가르족 또는 몬타그나르족으로 불리는 이들은 베트남 중부 고원 지대의 원주민 집단으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과



2024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복음 전도 집회 '스프링 러브 페스티벌'에서 한 참석자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다.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BGEA)

동맹을 맺었으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고문 중단 캠페인(Campaign to Stop Torture in Vietnam)에 따르면, 몬

타그나르드 기독교인들은 자주 신앙 포기를 종용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구타와 투옥과 같은 심각한 처벌을 받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베트남 공산당에 의해 기독교 신자의 집이 파괴되고 추방당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18년 베트남은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교 활동을 규제해왔다. USCIRF의 2019년 평가서는 베트남에서 종교 단체의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스러우며, 신청 승인이 오랫동안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또 공식 승인된 종교뿐만 아니라, 비승인된 단체들도 국가가 승인한 관행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글렌 그로스먼 미국 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은 2022년 성명에서 베트남 정부

의 규제를 비난하며, 종교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인의 다수가 베트남과 같은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5월에 발표된 최신 USCIRF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종교 자유 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독립 종교 공동체에 대한 박해도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특히 종교적 소수 민족에 대해 공격적이며, 강제 포기와 종교 집회 방해를 비롯하여 종교 활동과 언어를 침해하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의해 베트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극심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하는 '특별우려국(CPO)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유진 기자

CMF 선교회 7월 정기예배 드리고 친교 나눠

엄영민 목사 "참된 사랑" 강조

CMF 선교회 7월 정기예배가 지난 6일 오후 5시 CMF 회관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감철민 장로(CMF선교회 대회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찬양 팀의 뜨거운 찬양에 이어 양병식 목사가 대표로 기도하고, 엄영민 목사(현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총장)가 설교했다.

엄영민 목사는 "오현승 간사(대학 교수의 특별 순서에 이어 '참된 사랑(예레미야 9장23절-24절)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엄영민 목사는 "한국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니, 선교사들의 고민과 갈등은 일반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사역하고 있는가? 과연 나를 통하여 맺는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들인가?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민을 하게 해 주신다"고 말했다.

엄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



CMF 선교회 7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주최 측 제공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하셨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랑과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더 잘 할 수 있다는 교만 등등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열조들이 섬기던 우상을 좇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셨다. 교만과 자랑은 어느 곳이든지 무엇

을 하든지 누구에게든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경미(노르웨이선교사) *Jeff KIM (영국 선교사) *타원준 선교사(페루) *방호도 선교사(페루)가 각각 5분씩 간증을 하고, 채형병 목사(CMF)의 인도로 합심 기도를 하고, 조봉기 선교사(캄보디아)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 됐다. 김민선 기자

미주 대학생 모국 방문 "기독교의 강력한 뿌리 체험"

미국 장로교 한인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33차 미주 대학생 모국방문 프로그램'이 은혜롭게 마무리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모국의 예절 문화관, 전쟁 기념관, 대학교, 교회, 순교자 기념관, 산업시찰, 전방부대 등 전국 54곳을 방문했다.

참가 학생들은 방문지마다 부모님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모습을 보며, 기독교의 강력한 뿌리를 피부 깊숙이 느끼고 체험하는 소중한 순간을 가졌다고 고백했다.

이번 모국방문단을 인솔한 미국 장로교 한인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김우식 장로는 "우리 학생들이 각자의 생



행사 중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활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큰 은총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브25 제공

동정

홍대욱 목사 소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의족 기술자로 인정한 홍대욱 목사가 지난 6월 30일 소천했다.

장례식은 7월 13일(주일) 오후 3시에 Holly Tree Country Club(500 Golf Club Dr, Simpsonville, SC 29681)에서 열린다.

이후 추모예배는 1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민선 기자

2024년 세계선교교회 장학생 선발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가 2024년 장학생을 선발한다. 교회는 매년 가을 바자회로 기금을 모금하여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장학생 선발에는 남가주 거주

자 및 남가주 소재의 정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또는 입학 예정인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분야는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성적 우수자, 신학생, 목회자(전도사) 자녀 및 선교사이다. 교회 홈페이지(wmcla.com)의 교회소식란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7월 28일이며 장학금 수여식은 8월 11일 오전 11시, 세계선교교회에서 열린다.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수여식에 참석해야 한다. 김민선 기자

자연을
내리

구매 문의 | 1833-2655

제조원: (주)동진제약
판매원: (주)만수모강

MOMODAN HAIR TOTAL SOLUTION

"두피와 모발을 더욱 생기있게 업그레이드"

모모단 헤어토탈 솔루션을 만나 두피변화를 경험하며 자신감을 채우세요.

- ✓ 머리가 자주 가려우신 분들
- ✓ 두피에 각질이 많으신 분
- ✓ 머리가 빨리 기름지시는 분
- ✓ 가는 모발에 술이 없으신 분
- ✓ 두피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

모모단 헤어토탈솔루션
HAIR TOTAL SOLUTION

모모단 헤어토탈 솔루션 를 검색하세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예수 복음을 새로운 열정으로 전파하길”

조용중 선교사, 8일 KWMC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서 주제발표

8일부터 11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남가주 사립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2024년 기독교한인세계선교대회(KWMC)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첫째 날, KWMC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글로벌호프 대표)는 이번 선교대회에 세 가지 목표를 전하며, 세계선교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다.

이번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전 세계에서 500여 명의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 리더와 가족, 2,000여 명의 남가주 지역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예수, 구원의 그 이름(Jesus, No Other Name)’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조 사무총장은 8일 저녁 주제발표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이 말씀은 우리 모임의 기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분명히 해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회의 세

가지 중요한 목표로 △세계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동원 △선교사, 목사, 지역교회, 그리고 전문인과 학생이 된 선교사 자녀 간의 파트너십 강화 △선교사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소개했다.

조 사무총장은 “세계선교 현장은 긴급한 필요와 무한한 기회를 우리를 부른다”라며 “첫 번째 목표는 미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내에 열정을 불어넣고, 각 교회가 하나님의 전 세계적 사명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회는 운동을 촉발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략과 통찰력을 갖추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의 두 번째 목표는 우리 신앙 공동체 내에서 연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며 “선교사, 목사, 평신도 리더는 하나님의 사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 다른 날줄과 씨줄로 서로 엮여 있다. 마찬가지로 전문직 종사자가



조용중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되거나 학생인 선교사 자녀들과 젊은 청년들은 우리의 공동 사명 노력에 독특한 관점과 기여할 점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이 대회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협력과 상호 지원을 장려하는 자리를 놓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용중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대한 감각을 되살리고자 한다”라며 “해외에서 봉사하든, 지역사회 내에서 봉사하든, 이 대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새롭게 듣고, 그분의 위대한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진행 중이다. ©KWMC

사명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분별하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세 가지 소주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조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독특한 사랑을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며 “다원주의가 만연하고, 표준이 사라진 혼란한 세상에서 그분의 독특한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

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평안과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소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다시 연결해야 한다”며 “코로나(Covid)-19 팬데믹 이후 선교사, 목사, 평신도 리더, 선교사 자녀(MKs) 및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다시 연결하고, 선교사 가족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단절되

었던 유대를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일체감을 다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선교사, 목사, 평신도 리더, 그리고 모든 성도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 소주제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명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선교의 창의적 전략을 통해 복음을 퍼뜨리는 일에 더 큰 열정을 가져야 한다”라며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나눌 수 없는 열정과 창의적 전략으로 세계와 다시 연결하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동원하자”고 권면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소주제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다시 연결하며,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힘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희희 기자

국제뇌치유상담학회, 교회 여름수련회 등 ‘뇌발달과 중독예방교육’ 활발

“중독의 시대, 한국교회 다음세대의 뇌 건강 지킴이로 앞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이하 IBPS, 회장 손매남 박사)가 여름 방학 기간을 맞아 전국 교회 및 교회학교, 기독교 대학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뇌 발달과 중독예방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IBPS는 미국 코헨대학교에서 뇌치유상담학을 전공한 상담심리학 박사들이 연구 활동하는 단체다. 2년 전부터는 한국교회의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상담개발원(원장 손매남 박사), 미국 코헨대학교, 힐링브레인심리상담센터(소장 이세나 박사) 등과 함께 ‘뇌중독예방교육’을 비롯해 ‘뇌발달과 성경적 자녀양육교육’, ‘하나님의 신비, 뇌정신건강’, ‘뇌와 건강한 신앙생활’, ‘중년기 이후의 뇌정신건강’ 등 뇌치유상담을 주제로 교역자 수련회, 부모교육, 전교인 세미나 등에서 특강을 해 왔다.

지난 6월 서울 목동 목양교회 학부모 기도회와 지난 5월 삼양동의 한 교회 학교에서 IBPS 상임이사이자 사무총장인 이세나 박사는 각각 ‘뇌발달과 성경적 자녀양육’, ‘뇌로 보는 마음의 세계(뇌를

알면 중독이 보인다 ‘중독의 시대와 우리 아이 뇌발달’)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세나 박사는 한국상담개발원과 코헨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이자 ICADC 미국 공인 알코올 마약상담사로, 힐링브레인심리상담센터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뇌기반 심리상담, 인지행동치료 심리상담, 에니어그램 성찰·성격관계 심리상담, ADHD 및 뇌기반 심리상담 보수교육, 약물·마약·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세나 박사는 특강을 통해 “곧 다가올 미래는 휴머노이드 AI와 인간의 뇌의 공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교회에서도 뇌 교육이 시급하다”며 “이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아담의 뇌를 넘어서 거룩한 성령과 온전히 연합된 후천의 뇌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태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뇌발달과 뇌정신건강, 스마트기기에 의한 게임, 유튜브, 웹툰, 도박, 주식 등 사이버 마약 중독의 폐해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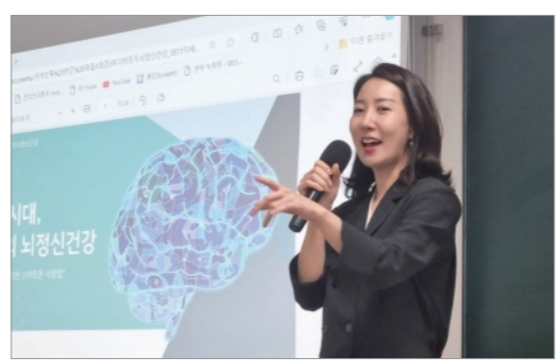
지난 6월 기독교 대학학교인 충남 서산 꿈의학교에서는 재학생 300여 명과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IBPS 이사 김태은 박사가 ‘패각 과잉의 시대에서 균형잡기’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강의를 했다.

김태은 박사는 한국상담개발원과 코헨대 상담대학원 교수이자 ICADC 미국 공인 알코올 마약상담사로, 힐링브레인심리상담센터 부모교육 및 자녀양육 상담전문가, 베델(중독회복공동체) 전담상담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지부 약물 예방 교육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

김 박사는 강의에서 오늘날 청소년 온라인 도박중독의 심각성과 디지털 기기 과의존의 위험성을 전하며 “특히 디지털 기기 중독은 뇌의 질병으로, 마약중독자와 비슷한 뇌 조형(shaping)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여름에는 서울 흑석동 선한 침례교회 유초등부·청소년부·청년부 여름수련회, 지난 2월에는 중앙대기독교학생회 겨울수련회에서 IBPS 회원 류은영 박사가 약물예방교육 특강을 전했다. 류 박사는 수십 년간 대학병원 수간호사로 일했으며, 현재 한국상담개발원 교수, 힐링브레인심리상담센터 약물예방교육 및 상담 전문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세나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서산 꿈의학교에서 김태은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국제뇌치유상담학회

류은영 박사는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청년들도 똑같이 불법 약물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물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마약으로 한번 망가진 뇌는 복구되기 매우 어렵기에 교회 청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정신적으로 통제력과 조절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IBPS는 이 외에도 수원 베델회복공동체 중고등약물중독 및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교육, 수원 내가사랑하는교회 알코올 중독예방교육, ‘도박, 그 끝은 어디인가’ 및 사이버도박 중독예방교육, 팽택 디

사이플교회 전교인 주일저녁예배 ‘디지털 시대, 잘파세대’ 특강 등을 했다.

이세나 사무총장(힐링브레인심리상담센터 소장)은 “불법약물예방교육은 가절 훈련과 처벌규정 교육이 핵심이고, 스마트폰 중독은 가족 규칙과 자기조절훈련이 핵심”이라며 “약 정보만 알려주고 끝나면 안 되고, 전문적인 중독예방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 특강, 수련회 특강 등에서 뇌심리상담 전문가이자 교회로 섬기시는 박사급 강사분들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뇌과학을 모르면 1세기가 늦다고 말하는 시대인데, 요즘 교회학교에서도 뇌과학, 뇌발달, 뇌정신건강에 많은 관

심을 갖고 문의를 주신다”라며 “더 많은 교회학교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뇌를 더욱 건강하게 돌봐주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문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IBPS는 교회 여름 사역으로 스마트폰·게임·도박·마약·마약 등 중독예방교육과 뇌기능심리상담, ADHD 클리닉, 뇌기반 인지행동 치료 관련 특강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문의 IBPS 상임이사 이세나 박사 010-5766-9294, 중독분과장 김태은 박사 010-8732-2154, 힐링브레인심리상담센터 031-715-9294

이희희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명세서 심의일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보안 및) 노란우산은 예금저축보안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명세서, 중소기업중앙회 제1202호에 따라 정제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까지 납부원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직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英성공회, 동성혼 축복예배 도입 계획 추진... 분열 우려”

영국 성공회는 동성커플을 위한 독립적인 축복예배를 도입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현행 목회지침에서 '사랑과 믿음의 기도(PLF)'를 단독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수정을 요청하는 동의안이 총회에서 지지를 받았다.

투표 결과는 영국 성공회의 분열 상황을 드러냈다. 주교 22명이 찬성하고 12명이 반대하고 5명이 기권했다. 성직자원에서는 찬성 99명, 반대 88명, 기권 2명이었고, 평신도원에서는 찬성 95명, 반대 91명, 기권 2명이었다.

사랑과 신앙의 기도문 과정을 담당하는 마틴 스노우 수석 주교는 이 논쟁에 참여한 양측의 우려를 듣고 "여러분은 영국 성공회에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는 "누구도 교회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으며, 기도문 도입이 결혼이나 혼외 정사에 대한 교리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도문은 강력한 환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간단한 기도문"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코트렐 요크 대주교는 총회가 PLF에 대한 절차를 처음 승인한 후 "지난 18개월 간 이 문제에 대한 상호전과 같았다"며 총회 회원들에게 "소송을 내려 놓으라"고 요청했다. 그는 PLF가 교리의 변화라는 것을 부인했고, "양상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아무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이 시작되기 전, 영국 성공회 소속의 전통주의 성공회 네트워크인 '얼라이언스'는 캔터베리 대주교와 요크 대주교에게 서한을 보내고 "독립적인 PLF 예배가 도입된다면 영국 성공회 내에서 사실



©The Church of England

상 새로운 '평행 교구'를 신속히 설립하고 결혼과 성에 대한 정통한 가르침에 충실한 주교들에게 목회적 감독을 구할 수밖

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티븐 크로프트 옥스퍼드 주교는 총회에 앞서 서면으로 답변하면서 이 편지

에 대해 "위협적이고 파국적"이라고 했다.

총회 토론 중 얼라이언스 회원들에게 연설한 스노우 주교는 "여러분이 영국 성공회에 남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와 계속 대화하려는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스틴 웹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얼라이언스 네트워크 회원과 친구가 없는 영국 성공회는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얼라이언스 서한에 서명한 평신도 총회 회원인 헬렌 램은 그 약속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듣고 싶어하고, 참여하고 싶어한다는 말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 룬버츠 목사는 영국 성공회가 동성혼과 축복 문제로 분열된 미국 성공회와 같은 길을 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제안은 우리에게 자리가 있다고 믿게 하는 꾀계를 제시하지 않으며, 그 결과

는 엄청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음주의 성공회 신학자이자 블로거인 이언 폴 목사는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신뢰가 마침내 깨질 것이고 교회가 분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교회가 계속해서 심각한 쇠퇴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14년 만에 규모가 반으로 줄었다. 한 교구에서는 4년 만에 참석하는 어린이 수가 50%나 줄었고, 아직은 이런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실질적인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스톡홀름 성공회는 결혼 교리를 바꾼 후 6년 만에 40%가 감소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불과 14년 후인 2038년 경 멸종될 것"이라며 "우리도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재앙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권력 다툼이 아니다. 이것은 정적이다. 동료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명경 기자

모세가 십계명 받는 모습 묘사한 1천5백년 전 유물 발견돼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묘사된 1천 5백년 전 유물이 오스트리아 남부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의 고고학자들은 이르센 시 작은 언덕인 부르그비클 묘상에 있는 교회를 발굴하던 중 기독교 모티프로 장식된 1천5백년 된 아이보리 상자를 포함한 성지를 발견했다. 이 발견은 2022년 8월 처음 이루어졌다.

학교 측은 최근 성명을 통해 고고학자들이 2016년부터 케른텐 드라마 계곡의 일부인 이르센에서 발굴을 진행해 왔다

고 밝혔다.

수석 고고학자 제럴드 그레버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종류의 아이보리 상자를 약 40개 정도 알고 있으며, 발굴 중 이런 상자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은 약 100년 전이었다.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성찬기는 성당 보물에 보관되어 있거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유물의 모티프 중 하나는 사람이 머리 돌리고, 그 위로 하늘에서 손이 솟아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이 사람은 성경 속 인물들의 묘사와 함께 팔 사이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레버는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넘겨주는 장면의 전형적인 묘사이며, 구약성서에서 (묘사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모티프는 두 마리 말이 마구를 매인 전차를 탄 남자를 보여주며, 구름에서 나온 손이 천국으로 사람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레버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승천을 묘사한 것이라고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약성서 장면과 신약성서 장면과의 연결은 고대 후기의 전형이며 따라서 (우리가 발견한) 성찬기와 잘 맞다. 그러나 비가(biga)라고 불리는 2마리의 말

이 끄는 전차를 탄 그리스도의 승천을 묘사한 것은 매우 특별하고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연구자들은 기독교 교회 두 곳, 물탱크 하나, 정착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개척자들은 계곡을 버리고 방어하기 쉬운 언덕 위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그레버는 설명했다. 연구자들은 상자에서 발견된 상아, 금속 구성품, 나무 부분의 원산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레버는 "성찬기의 고고학적, 미술사적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경 기자

나토 “우크라이나 위한 한국 지원, 무엇이든 환영”

한국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 관련

정부가 러시아의 향후 행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도 열어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어떠한 지원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토 고위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75주년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로 이전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불법 침략에 맞서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나토 한국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따뜻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9일 푸틴 러

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고하겠다며 반발했다.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 발생 시 상호 군사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상호방위조약으로 평가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한에게 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었느냐"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제공할 것이냐는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굉장히 여러 단계의 조항을 만들 수 있다.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무기지원의 조항이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서면인터뷰에서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의 구체적인 (대)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은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윤희 특파원

이란 대통령 당선인, 이라크 총리와 양국 협력에 대해 전화 회담

이란의 대통령 당선인 마수드 페제시키안과 이라크의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총리가 9일(현지시간) 양국 관계와 향후 협력에 대해서 전화 회담을 했다고 이란 관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알 수다니 이라크 총리는 이날 전화로 페제시키안에게 이란의 14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했다고 IRNA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란과 이라크 두 나라의 관계와

중동 지역,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에 대해 낙관하면서 이란과 이라크의 유대가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임기 동안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 수다니는 페제시키안이 이미 공표했던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정책이 이란 국민 뿐 아니라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제시키안 당선인도 이라크

정부와 국민들이 선거 승리를 축하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란과 이라크가 여러 방면에서 서로 협력해 온 것처럼 두 나라는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외교 정책 가운데 이라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자 전쟁에서 그동안 이라크가 취한 역할과 팔레스타인 부상자들을 치료해 준 데 대해서 찬사를

보냈다.

페제시키안은 이번 대선에서 이란 핵협상 대표 출신의 사에드 잘릴리를 이기고 승리했으며 6일 이란의 차기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그는 8일에 이미 이라크의 압둘 라티프 라시드 대통령과 통화했고, 두 정상은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IRNA통신은 보도했다. 차미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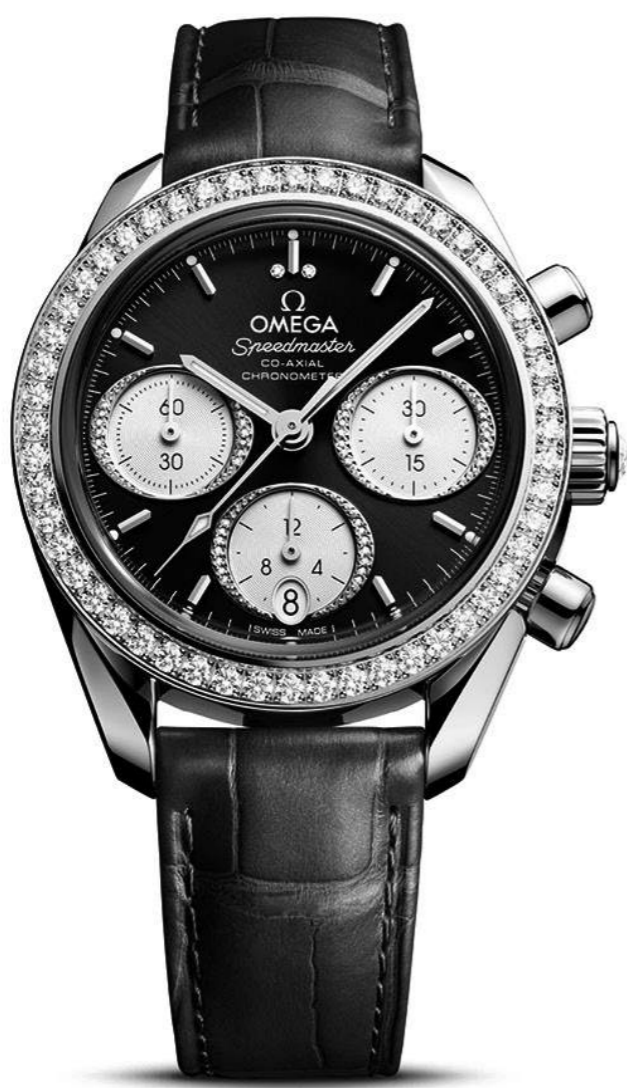
125th Anniversary 국민 생활 건강 캠페인

N°20 건강한 인사법

동화약품 SINCE 1897



일러스트: 양나영



SPEEDMASTER 38mm
Co-Axial Chronometer

ICONS THAT SHINE

오메가는 모델이자 배우, 오메가 브랜드 홍보대사인 카이아 거버와 함께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38mm를 선보입니다. 오메가의 새로운 크로노그래프는 52개의 다이아몬드가 파베 세팅된 베젤과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폴리싱 크라운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이아 거버의 세련된 스타일에 완벽한 마무리를 더하는 타임피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

경제 회복과 미래 비전 강조... “더 유능하고 혁신적인 민주당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안보, 저출생 문제, 미래 비전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를 살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생 회복’과 ‘미래 먹거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구상을 재차 언급하며,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질의응답 중 미소짓고 있다. ©뉴스시스

한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기반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을 높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본사회 구상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 45시간제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주 41시간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녀 모두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양육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육아휴

직으로 인한 차별 해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며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를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 1정당이든 수권정당이든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이 전 대표 외에 김두관 전 의원과 김지수 한남도미래경제포럼 대표가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유력하게 보고 있으며, 만약 이 전 대표가 당대표직 연임에 성공하면 1995~2000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연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박용국 기자

진중권 “김건희 여사와 총선 후 통화... 명품백 의혹 사과 어려움 토로”

한동훈 ‘입씩’ 논란 관련 입장 밝혀... “친윤 측 주장은 당시 들은 내용과 180도 달라”

진중권 동양대 특임교수(사진)가 10일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입씩’ 논란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직후 김 여사와 나눈 57분간의 통화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진 교수에 따르면, 김 여사는 통화에서 다음 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했다. 김 여사는 사과할 의

향이 있었으나 주변의 만류로 인해 실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변에서는 한 번 사과하면 계속 사과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고 한다. 또한 김 여사는 진 교수에게 “내가 믿는 주변 사람들 중에는 자기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이가 있는 걸 나

도 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진 교수는 이를 대국민 사과를 만류한 사람들 중 하나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김 여사가) 나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한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났을 거다. 이제라도 한 위원장과 대통령님을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 교수는 이러한 김 여사의 발언이 최

근 진중권의 주장과 180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두 달 사이에 그 동네의 말이 180도로 확 바뀐 것이다. 사과를 못한 게 한동훈 때문이라고”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진 교수는 자신과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한 위원장과는 총선 끼고 6개월 동안 그 흔한 안부문자도 주고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김

여사에게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라고 물으며, 최근 제기되는 주장들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한편, 앞서 진중권과 원희룡 캠프 측은 한동훈 후보가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진중권 교수에게 보여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한 후보의 ‘정체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후보와 진 교수 모두 이러한 주장을 부인해왔다. 박용국 기자

내년 입주 가능!

당신의 건강 기대수명을 늘려 드립니다

하이엔드 호텔식 시니어주택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과천봉담고속화도로

백운호수

청계C

백운호수역(가칭) 신설 예정

입주부터 식사와 문화생활까지 한번에, 호텔형 생활 서비스

- 액티비티존** | 실내/외 수영장,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 힐링존** | 사우나, 바다케어센터, 메디컬센터
- 리빙존** | 레스토랑, 올데이 클래스, 컨시어지 데스크
- 커뮤니티존** | 커뮤니티 광장, 다목적홀, 라이브러리, 맨즈클럽

월드컵 경기장 2개 규모의 약 3,500여명 초대형 커뮤니티

- 365일 식사서비스**
전문영양사가 제공하는 1일 3식 맞춤형 건강식단
- 하우스키핑 서비스**
주 1~2회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서비스
- 메디컬케어 서비스**
24시간 간호사 상주 및 건강검진 연 1회
- 올데이 클래스**
음악, 체육, 문화, 교양 등 다양한 문화강좌 클래스

생치자 겸 양육인 M+ 엠디엠플러스

대리사무실 KAIT 한국자산신탁

시공 대우건설

총 536세대 1577-5052

윤석열 대통령, 하와이 순방 마치고 워싱턴으로 출발

나토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 일정 앞두고 1박 2일 하와이 방문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1박 2일간의 하와이 순방을 마치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탑승했다.

하와이 공항에서는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부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블랭지아디 호놀룰루 시장,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 부부, 서대영 하와이한인회장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미군 20여 명이 도열한 가운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 공군 요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파란색 체크무늬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김 여사는 검은색에 노란무늬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 차림으로 베이커에 핑크무늬 손가방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환승 인사와 과 악수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특히 라케

머라 사령관과 비교적 길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됐다.

하와이 순방 첫날, 윤 대통령은 태평양 국립묘지(일명 ‘편지봉’)를 방문해 6.25 참전용사들을 참배하고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100여 명이 참석한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를 돌아보고 한미 양국 간 우정과 유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또한 재외동포정을 통한 교민사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순방 둘째 날인 9일에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결속을 과시하고 강한 한미연합방위태세에 힘쓰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인테사 휘하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엘 파파로 인테사령관으로부터 작전현황 보고를 받으며 한반도 정세 속 견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했다.

김 여사는 별도 단독 일정으로 한인 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하카마 공군기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만·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했다.

이번 하와이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이동해 나토 정상회의와 인도태평양 4개국 파르너(IP4)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등 다자 외교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국 기자

美연구소 “트럼프 재집권시 북핵 해결 대가로 한국 핵무장 용인 가능성”

브루킹스 연구소, “트럼프, 북한과 ‘딜’ 위해 동맹국 희생할 수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8일(현지시간) 발표된 ‘2024년 미국 대선에 북한이 중요한 이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트럼프가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밀감을 강조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트럼프가 스스로를 ‘딜 메이커’라 여기고 있어 미완의 북한과의 협상을 성사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각에서 할 수 있는 우려. 즉 트럼프가 김정은과 ‘베드 딜’을 체결해 실질적 약속 없이 북한의 핵지위를 유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시각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보고서는 트럼프의 접근 방식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희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이미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 감축과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한 바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한미 간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며 불신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국의 안보 우려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미 대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미 외교를 추진하면서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 또는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윤 정부에게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핵무기 도입이 역내 핵확산을 촉발해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방안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국 기자

최상목 “부동산 변동성 대응,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확대”

고용 상황 면밀 점검, 소상공인 지원책 구체화 약속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고용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상황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확대된 9만6000명을 기록했다”며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간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대응하겠다”며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배가하고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지영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달 내 생활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해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이번달 내로 가동을 시작한다”며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출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채무격정도 과감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감감하겠다”고 밝히며, “초기기업이 실적 부족을 이유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평가 기준을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 2차 무기한 총파업 돌입

전삼노 “사측 대화 의지 없어… 생산 차질 확인, 파업 장기화 예고”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0일 2차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8~10일 3일간의 1차 총파업에 이은 조치로, 노조는 사측의 대화 의지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전삼노는 선언문을 통해 “1차 총파업 이후에도 사측의 대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 2차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1차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파업이 길

어질수록 사측은 피가 마를 것이며 결국 무릎 꿇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전 조합원 임금 기본 3.5% 인상 ▶조합원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급(OPPTAD) 제도 개선 ▶무임금 파업으로 발생한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이다.

전삼노에 따르면, 1차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6,540명이며, 이 중 설비, 제조, 개발공정 참여자는 5,211명, 반

도체 주요 라인인 기흥, 화성, 평택사업장 참여자는 4,477명이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3만1,400명으로,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5% 수준이다.

반도체 사업장의 특성상 생산 라인이 한번 멈추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파업의 영향이 주목된다. 칩 한 개 생산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되며, 장비가 멈추면 중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 채널이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이지만, 1차 총파업 이후 노사 간 공식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계자는 “아직 보고된 생

산 차질은 없으며,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무기한 총파업 선언으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 진전 여부와 생산 차질 발생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노사 간 일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에 돌입한 8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교육부, 의대생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공익 위한 조치”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학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이번 조치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경우, 등록금 추가 납부 없이 무료로 보충학기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예과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진급을 원칙으로 하여 대학 내규나 학칙을 개정함으로써 내년 신입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민들에게 의대생들이 조속히 수업 현장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요청했다.

가이드라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학 내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수급체계의 안정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별 대학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직접적 인 호소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업 복귀 시 유급에 대한 걱정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 의료계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주기 바란다”며,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논의에 학생들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대비한 내년도 신입생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 부총리는 “이제는 정말 돌아와야 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하고 있고 이제 요구 사항들이 많이 수용된 만큼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 초등학교 1만5천 명 감소… 학령인구 감소 현실화

서울시 내 초등학교 수가 지난해 대비 1만5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2024학년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3월 11일을 기준으로 한 학생 수와 교원 수 등을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내 유치·초·중·고교 등 전체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만 7478명이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 1만5529명이 감소한 36만4910명으로 집계됐다. 중학생은 2195명, 유치원생은 1744명이 각각 줄어 19만6453명, 6만1136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 수는 오히려 1801명 증가해 20만7885명이 되었다. 교육청은 이러한 증가세의 주된 원인을 2007년 황급 돼지띠 출생 학생들(현 고2)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학령인구 감소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수는 4만4626명이 줄어 10.9%의 감소율을 보였다. 고등학생 역시 1만6731명이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 수도 조정되었다. 올해 유치·초·중·고교 등의 학급 수는 전년 대비 811개가 줄어든 3만9073개로 확정됐다. 초등학교 학급이 453개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축소를 보였고, 총 1만7432개의 학급이 운영된다.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급 수도 각각 119개, 125개가 줄어 8763개와 8233개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초·중·고교 전체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3.4명으로 지난해보다 0.1명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

우 한 반 평균 인원이 22.1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감소했다. 반면 중학교는 24.9명으로 0.1명, 고등학교는 24.5명으로 0.7명이 각각 증가했다.

교육청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 폭보다 더 많은 학급 수 감소로, 고등학교는 교원 수 감소의 영향으로 학급 수가 줄며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 정원 규모 축소로 인해 적정 학급 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수 변동 추이, 지역별·학교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학급 수 운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보검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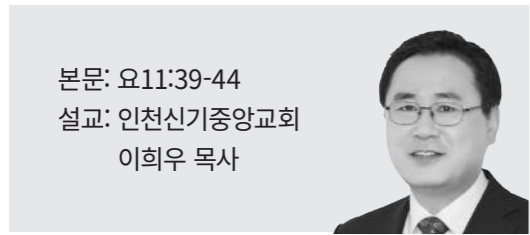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검 경옥고는 동아보검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반의약품 |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원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요한복음(60) 나사로야 나오라



본문: 요11:39-44
설교: 인천신천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1972년 1월 24일 남태평양의 섬 판에서 갇혀 지내던 짐승 모양의 한 노인이 발각된 건 세계적인 뉴스거리였다. 이름은 쇼이치 요코이(横井庄一)이다. 이 58세, 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일 때 나고야에서 징집됐던 일본군인. 참전 3년 만에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고 미군 비행기가 떨어뜨린 전단을 통해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52년 무렵 알고도 미군에게 잡히면 포로 될까봐 동굴 속에 숨어서 27년을 홀로 지냈다. 낮에는 동굴 속에 숨어있다가 밤에만 나와 과일과 물고기로 연명했다. 사람들이 그를 발견한 후 전쟁이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지만 두려워하며 자기를 동굴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귀국해 참의원에 출마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는 두려움의 동굴, 고통의 동굴에 갇혀 진정한 행복과 자유도 누리지 못하며 산다. 어떤 분의 묘비에 적힌 글이다. "사랑했으나 사랑받지 못하고, 기쁨을 주려 했으나 기쁨을 얻지 못했고, 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죽어서도 외로운 이, 여기 잠들다". 사람들은 죄다 외롭게 산다.

살고는 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본문에도 깊은 동굴에 갇혀 공포 속에 죽어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나사로다.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37절)라고 했고, 순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 안 들렸을까? 비뚤히 여기시던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물으셨다.

마르다가 벌써 뱀새가 난다고 하는데도 믿음을 강조하시자 누가 옮겨놓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돌을 옮겨놓았다. 아마 마르다가 몇몇 유대인들이 함께 옮겨놓을 것이다. 말씀으로 돌도든 자동문처럼 열리게 하며 나사로를 불러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골든 마우스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은 "유대인들이 더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돌을 치우게 하였던 것 같다"고 했다.

예수님이 큰소리로 외치신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 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44절),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나오라'는 명령 때문인데 그 과정이 은혜롭다.

◆감사 기도하시다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묻혔다. 유대인은 죽으면 그날 바로 매장한다. 날씨가 더워 부패하기 때문이다. 이게 1차 매장. 이때는 밧줄로 꿰뚫어

무덤에 넣어 둔다. 밧줄로 묶는 것은 속죄의 의미다. 평생 지었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다.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버지 아하즈의 시신을 끌고 거리를 다닌다. 불효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제 구약 사람들의 관습,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랬던 거다. 그렇게 꿰뚫어 묶어서 한 1년 놔두면 더운 나라라 빼만 남는다. 그러면 빼만 추려서 남골관에 넣는 게 2차 매장이다.

무덤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무덤 밖, 현관, 그리고 무덤 안. 무덤 밖에는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을 보호하기 위한 돌이 있다. 크기는 대략 길이 1-2미터 전후, 주로 동글다. 돌을 굴러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이 나온다. 현관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놓는 곳, 1년쯤 지나면 거기서 빼만 모아 남골관에 안장한다. 무덤의 규모는 각각 다르다. 보통은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지만 어떤 무덤은 70명까지 들어간다.

그런데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시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이다(41-42절). 예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신다.

더 이상 울지 않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것. 이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마음이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말을 들으신다고 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관계가 아주 좋다는 의미다. 예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즉각 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로고시다. 인간의 한계나,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서 항상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었던 것이다.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사람들이 알아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도가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것은 아니다. 아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기도나 주문이 필요 없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것은 이 기도가 세상에 보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신지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할까에 집중되어 있으시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라는 예수님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않고 간수를 전도한다. 목적이 탈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묻는다. 관심이 어디에, 무엇에 집중되어 있나?

◆큰 소리로 부르시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점 언제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43절), "나사로야 나오라" 마치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목자의 모습 같다. 예수님은 지금 양의 이름을 부르듯 나사로를 부르신다. 주목할 것은 '큰 소리로 부르셨다고 했다. 죽은 자가 듣게 하기 위한 큰 소리가 아니다. 이 소리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큰 소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한 큰 소리다.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생명에서의 완전한 이탈을 의미하는 나을, 유대교 랍비에 의하면 "사흘이 지나면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고,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하며, 그때까지 시신 주변을 배회하였던 영혼은 육체로부터 이탈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흘이 지난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셨다.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의 때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이다.

이때 만약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나오라" 그러했다면 그곳이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이었기에 한 500명은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을 부르셨는데 앞으로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부르실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터득한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14:8),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21)라는 유명한 고백을 했다.

베와 수건을 동인 채 동굴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온다. 그 모습이 마치 이집트 피라미드의 마라의 부활 같다. 그들이 그러던 부활이 종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선행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 때문도 아니다. 부활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만 주장해야 한다.

금일 총계 사신 104세 된 할아버지와 99세의 할머니,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을 떠나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본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영감" "왜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하나님 명부에서 빠뜨리셨나봐요" "뭣 조용히 해 하나님 들으실라" 쉬쉬한다고 영원히 살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도 자신의 육체를 보존한다. 구소련의 레닌, 불가리아의 디미트로프, 구소련의 스탈린, 구 체코슬로바키아의 고트발트, 베트남의 호치민, 앙골라의 네트, 가이아나의 바나,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 김일성, 김정일 총 10구 정도, 시신을 방부처리하고 가장하게 보존하지만 사실은 불쌍하다. 2011년 12월 20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김일성 시신 영구보존 과정에 100만 달러(14억)가 들었고, 관리비도 연간 80만 달러(1억 이상)가 든다고 한다. 부활을 아는 사람 들에게는 의미 없는, 부질없는 것이다. 기억하라. 죽음도 부활도 주님의 은혜이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자 제자들이 근심에 싸인다. 하지만 천국을 마련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데려다 오신다며 근심하지 말라고 큰소리치셨다(14:2-3). 주님은 우리에게도 큰소리치신다. 그 소리가 바로 "내가 책임진다"는 것.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소리는 내가 책임진다. 주님의 큰소리였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44절), 속박되어 있던, 죽어서 매장되어 있던 나사로를 풀어주는 해방 선언이다. '수족이 베로 동인 채'라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왔을까? 강시처럼 푹푹푹푹 뛰어났다는 것일까? 레온 모리스(Leon Lamb Morris)는 "이제 속의 또 하나의 이적"이라는 호스킨스(C. Hoskyns)의 말을 인용해 설명했다. 호스킨스는 "겉에 나온 것이 아니라 단단히 묶인 채 강한 능력에 의해 끌려 나온 상태"라 했다. 아니면 묶는 방법이 두 다리를 하나로 따로 묶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부활은 풀리는 것. 성경을 보면 "풀린다"는 말이 참 많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시71:2),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고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시116:6),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을 사슬을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렘40:4),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죄로부터 풀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젠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2:24). 예수님은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푸셨다. 대신 죽음의 밧줄에 묶이며 우리를 생명으로 풀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우

리를 살리신 곳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적 교환소. "우리는 교환되었다"(We are exchanged). 예수님이 대신 목이고 우리가 풀린 것이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Max Lucado)가 쓴 『Six Hours One Friday』란 책이 있다. 이 책에서 루케이도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간의 세 가지 F가 풀렸다고 했다. 그 3F는 Futility(허무), Failure(실패), Finality(죽음)이다.

요한복음 11장과 유사한 그림은 구약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가 부활하는 장면이다. 바벨론의 포로된 땅에서 예언한 에스겔 선지자의 부활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한 지 1년쯤 지나서 했던 예언이다. 에스겔이 주의 영에 이끌려 간 곳은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데서 하나님이 물으신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겔37:3).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함께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겔37:4-5). 뼈들이 모이고 자기 뼈들을 맞추기 시작한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7절). 이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으라"고 명령하니 해골과 뼈 위에 살이 붙어 사람의 형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겔37:9) 하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귀환을 의미하는 환상이다. 민족이 두 동강 난 것이 죽음이려면 두 동강 난 남북 왕국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부활, 부활은 포로에서 해방되고, 가난하고 약한 민족이 강성해지고 지도력을 갖게 되는 민족 비전의 실현이다.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은 '선(先) 순종이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후(後) 체험하게 한 것이다. 마르다와 돌을 옮겨 놓은 몇 사람의 믿음을 쓰셔서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다.

선(先) 순종이 중요하다.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同義語). 믿음이 곧 순종이다. 순종해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봉대를 풀게 하신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일수록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일단 순종하면 기적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움직이고 난 후 죽은 자의 수건을 서로 풀어주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푸는 능력이고, 교회는 푸는 열쇠이며, 기도는 푸는 방법이다. 그리고 믿음은 푸는 연습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다. 십자가에서 이미 풀어주셨는데 도로 묶지 말고,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임을 믿고, 언제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여야 한다.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30정

광고심의필: 2022 - 1618 - 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베프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범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상품 및 구입문의: 080-082-1234 (수신자 부담)

칭의(稱義)와 정의(正義)

양기성 박사
웨슬리언교회지도자
협의회 대표회장



가장 귀한 것이 가장 흔한 보통의 가치로 나타난 것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의(義)”라는 단어다. 그렇게 귀한 단어가 인 의를, 숭고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나 어디서든 쉽게 개념없이 말하고 있다. 심지어 조폭들도 의를 거론하고, 의리를 말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 본래의 뜻을 다시 회복해 보고자 한다. 의란 무엇일까?

본래 의는 직선과 같이 “곧음”을 뜻한다. 구불구불 휘어진 것은 곧은 것이 아니기에, 믿음이나 신념에서의 같 지(之)자 행보는 의라 말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의는 “바름” 또는 “옳바름” 같은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말 할 때는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사는 사람” “옳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한다.

동양에서 의(義)의 한자는 羊(양)과 我(아나)의 합성어인데, 말하자면 양 아래 내가(인간) 있는 형상이다. 양은 어질고, 순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희생당하는 가축으로 인식되어 있다. 어질고, 순수하고, 겸양의 가치 아래 내가 있을 때 그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29절에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 말하고 있어 요한은 예수님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사람이 있는 것을 의라 하는 것이다. 한문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스도와 어떻게 상호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너무 억지 해석하지 말 수 없으나, 하여튼 그런 뜻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

성경은 일찍부터 의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성경은 “믿음”이 “의(義)”임을 가르친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은 “믿음을 먼저 구하고 찾으라”는 뜻이다. 성경에서 의는 믿음임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의는 사회영역에서 쓰는 의와 구별이 된다. 아브라함 현상에서의 “의”에 대한 정의(Definition)는 종교적 신념, 정신이나 양심적 의로서 영어로 보통 “Righteousness”를 쓴다. 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의는 행위를 근거로 하는 “Justice”를 쓴다. Righteousness는 영적, 신령적 정신으로서 모든 의에 대한 입법적 의미를 갖고, Justice는 사회 도덕적 의로 사법적 의미를 갖는다.

범죄자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말 할 때는 도덕적 문제이므로 Justice를 쓴다. 미국의 법원을 영어로 “Department of Justice”라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 형상의 모습인 양심이나 믿음에 대해 말 할 때는 Righteousness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 예언자(선지자) 아모스는 사회의 불의나 부정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그때는 물론 righteousness를 쓰기도 했지만, 주로 Justice를 쓴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정신적 바름, 옳음, 곧음을 말할 때는 Righteousness를 쓰지만, 도덕적 문제로서 행위를 말 할

때는 정의인 Justice를 쓴다. 아무튼, 의나 정의는 일반적으로 “바름”을 말한다. 무엇이 바름이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며 (Righteousness), 그 뜻을 세워가기에 합당한 행위(Justice)라 할 수 있다.

이제 신학과와 세속사회 철학자가 말하는 의를 알아보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토(플라톤의 영어식 발음)는 정의에 대해 말했다. 그에 의한 정의란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일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는 것”이라 하였다. 반대로 말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간섭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으로서 불의라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등한 관계로 어떤 가치들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라 하였고, 20세기 미국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정의는 사랑의 근사치이며, 균형(Balance)”이라 했다. 나아가 그는 정치의 임무에 대하여 말하기를 “정치란 불의한 세상에 사회정의를 수립하는 일”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존 롤스는 “공정성(Fairness)을 정의로 보았고, 27세에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된 마이클 샌델은 존 롤스 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계열에 속하는 학자로서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 자유와 권리를 공정하게 함께 누림을 정의로 보았다.

이들 철학자들, 니버같은 신학자의 “의에 대한 설명 역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누구에게나 필요한 내용들이다. 성경 신구약은 믿음에 의한 의를 전면에 앞세워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도덕적 의인 정의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회 공동체 안

에 존재하는 인간들이기에 정의역시 생활 속에서 실현해야 할 도덕적 가치다.

여기서 인간과 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은 죄인이므로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의인이 되었다”는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인 것처럼 불러주겠다” 하여 칭의론이 나오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크리스찬들이 흔히 영육이라 말할 때, 영적으로는 믿음에 의한 의의 삶을, 육적으로는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영적, 신학적, 정신적 의(Righteousness)를, 즉 믿음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도덕적으로 의에 이르는 행위적 정의를 실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Righteousness(의)와 Justice(정의)는 형제요 자매이며, 앞과 뒤이며, 왼쪽인 동시에 오른쪽 관계다. 믿음의 의는 인간 사회정의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루터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입법적 의미를 가진 믿음에 의한 의를 우위에 두고 열심히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신학적)의 의인 “칭의”와 행함적(사법적) 의인 “정의”를 다 이루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칭의(믿음의 의/Righteousness)를 모르고 플라톤의 사회적 정의(justice)를 등한히 하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복사와 산학자)이라 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브리서 11:6)

요한계시록 공부: 하늘에 열린 문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세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4장에 들어가면서 하늘에 열린 문이 나타나고 열린 문 위에 하늘에 있는 보좌 이야기가 나오니, 요한계시록에는 2보좌가 있습니다. 지상의 보좌와 하늘의 보좌입니다. 지상의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입니다. 하늘의 보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가 등장합니다. 그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흰 옷을 입은 이십사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 이십사 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이 앉는 보좌입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합니다. 눈들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천상천하에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뜻합니다. 그들 4생물은 첫째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들 4생물을 신약성경의 4복음서에 적용하여 해석합니다.

첫째 생물이 사자는 마태복음입니다. 사자가 짐승들 중에 왕이기에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곧 왕이신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니, 야기 예수가 태어났던 때에 동방 박사 3분이 별을 보고 찾아와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둘째 생물이 송아지는 마가복음입니다. 송아지는 삼가는 삶의 본보기가 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 곧 삼가러 오신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삼가러 오신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가복음 10장 45절)

즐거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김성수 목사
시애틀 지주교회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너무나 커서 나에게 일어난 이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기뻐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여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쓰럽게 바라보며 “너무 깊이 빠지는 마라”, “나한테 교회 가지고 하지는 마라” 등의 말이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슬픔을 위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기뻐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자

랑처럼 들리지 않도록 겸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복음전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대로 해서도 안됩니다. “뻔뻔함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즉 “지혜로운 행동과 도덕적인 순결”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 싱글, 노인과 외국인 전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죠. 분명,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든 전도자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순결”입니다. 이것은 “경건, 성숙, 성실, 순수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오늘날 성도들이 왜 전도의 열심과 열정이 식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를 꼽으려면 세상에서 죄와의 전쟁에서 “순결성”을 타협한 탓은 아닐까요?

부디, 기도하기는 다시 복음을 들고 구원의 감격과 순결을 지키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 당당하고 즐거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안전이 최고다

고상범 목사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장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캠프 등 교회학교가 제일 바쁜 시즌이 7, 8월이다. 여기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말씀, 기도, 찬양,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안전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요즘은 교회 마당에 에어바운스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교회도 많이 늘어났다. 가끔 뉴스에 교회학교 학생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도중 계곡에서 물놀이 하거나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다. 사고가 나면 교회는 초 비상이다.

이제 여름사역이 본격화되면서 안전한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안전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첫째, 교사들이 먼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하는 방법을 배워라. 만약 시간이 없다면 지도교역자라도 배워야한다. 자세한 것은 대한인명구조협회를 참고하라.

둘째, 외부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시설점검과 리허설이 필요하다. 특히 물놀이는 더욱더 안전요원이 필요하다. 저는 여름성경학교 때 가능한 물놀이(수영장)는 하지 말라고 한다. 또한 2부 활동을 할 때 리허설은 필수이며 학생들이

가는 길목에 돌이나 위험 요소들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셋째, 기본 비상약(소화제, 진통제, 알레르기 약, 해열제, 멀미약, 소독약, 연고 등)을 준비하라.

넷째, 가까운 병원, 의원등을 미리 알아라. 병원을 미리 알아놔야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시 허둥지둥 않는다.

여름행사를 아무리 준비를 잘 하고 잘 진행을 하며 우리 다음세대들이 은혜를 받는다 할 지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조그마한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교회가 져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역량의 증가(자기개발)



정태희 목사
DCMi 선교회 대표

정태희 목사의 삶과 리더십

리더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일단의 사람들은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태어나기만 해서 리더가 된다면 왜 탁월한 리더 중에 갖나가는 없는가? 물론 선천적으로 리더십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리더가 되기 위해 그 이상 좋은 것을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런 DNA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리더십 역량을 키워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 유능한 리더가 될 수는 없다. 성장하지 않는 리더는 퇴보할 뿐이다.

유능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리더는 매일 노력해야 한다. 어떤 분야의 노력이 필요한지 필자가 일일이 열거해 주어야 한다면 당신은 리더가 아님에 틀림없다. 리더라면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매일 자신의 역량을 증가시켜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다.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한 철저한 준비만이 리더를 더욱 효과적인 리더로 만든다. 더 나은 미래는 준비하는 리더만이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권 (comfort zone)을 떠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반복한다고 해서 리더로 만들어지는 않는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자신이 갖은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버거운 일을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리더는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방을 보면서 뛰어내릴 수는 있는 무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때 만일 주님이 우리의 등을 밀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 뜨려 주신다면 리더에게는 그 이상의 은혜는 없다. 바울에게 자신이 원치 않았던 가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을 없었을 것이다 (고후 10:7-10).

Mike Breen은 이 과정을 "Reach and Stretch, Embrace and Receive"라고 부른다: 리더가 자신의 능력 이상의 과업을 직면 (reach) 한다.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리더는 자신이 갖은 역량의 한계를 확장 (stretch) 한다. 이 과정에서 리더는 고통을 끌어안고 (embrace)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receive). 결국 이런 과정이 선순환할 때 리더십의 역량은 확장된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죽음에서 소생한 나사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님을 전했겠는가? 그의 전도를 저지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한 기존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고작 나사로를 향해 이렇게 험박했을 것이다. "네가 예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소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한 번만 더하면 죽을 줄 알라" 나사로에게 죽인다는 말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그는 죽음에서 자신을 소생시켜 줄 분을 안다.

"Reach and Stretch, Embrace and Receive"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끌어안으라. 그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면서 자신을 확장하라. 고통을 끌어안고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으라. 한 세대에 주님이 사용했던 영적 거인들은 들은 모두 이 과정을 통과했다. 다시 말해 리더십 기술을 배운다고 탁월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다. 고통과 연단 속에 이를 끌어안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 리더의 한계는 확장되고 리더의 역량은 증가한다.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평범한 리더가 탁월한 리더도 변모한다. 고통은 리더십 한계를 확장시킬 전례의 기회이다.

社說

성 소수자 축복한 목사에 칼 빼든 교단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동성애대책위원회(동대위)가 지난달 서울 퀴어문화 축제에서 성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축복식을 진행한 교단 소속 목사 6인의 회개를 촉구하며 소속 연회에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앞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남노회가 엄 모 목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서울 퀴어축제 축복식 관련 목회자에 대한 조사 처벌 문제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기감 제35회 총회에서 구성된 동대위는 지난 8월 인천 소재 기감 중부연회 사무실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한 교단 목회자들을 소속 연회를 통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유는 이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있는 대로 지난 6월 1일 서울퀴어축제에서 기감 소속 목사 6인이 동성애 축복식에 참여했는데 이 자체가 "반성경적이며 기감의 '교리와 정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기감 동대위가 서울 퀴어축제 축복식에 참여한 교단 목회자들을 각 연회별 동대위 위원들이 나서 기소위원회에 고발하도록 요청한 건 기감 교단 내에서 동성애에 지지 옹호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그 증거로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해 정적 판결을 받고도 계속해서 동성애 찬동 활동을 해 지난 3월 기감 총회로부터 최종 출교 조처를 받은 이동환 씨를 소환하기도 했다. 이 씨 판결로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축복식을 한 행위가 성경과 '교리와 정정'을 정면 부정하는 범죄임이 명확해졌음에도 또 다시 교단 목사 6인이 동성애 축복식에 참석해 축복식을 진행한 행위는 "매우 의도적"이란 게 결론이다.

기감 동대위가 이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기소 의견을 밝혔으나 무조건 처벌에 무게를 둔 건 아닐 것이다. 교단의 법과 교리를 어긴 잘못에 대해 누우침과 회개를 촉구한 점을 보면 속내를 알 수 있다.

기감 '교리와 정정' 1403단 제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범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동환 목사의 경우,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도록 한 교리와 정정 1405단 제5조 3항에 의해 정적 처분을 받은 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동성애를 찬성 동조하는 행위로 출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서울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6인의 목회자를 각 연회가 처벌하기에 앞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데 주안점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이들 목회자가 자신들의 행위가 성경의 가르침과 교단법에 어긋난다는 걸 몰랐다가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소속 연회에 선처를 호소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앞서 이동환 씨처럼 동성애 옹호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동성애 옹호를 금지한 교단의 법보다 성 소수자 축복이 훨씬 가

치 있는 일이라는 소신과 신념 없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대위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교단의 법을 조롱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발표한 성명에서 "동성애 옹호 지지 행위"를 간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교리와 정정'을 수호해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감리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같은 동성애 옹호 전적으로 교단 목회자가 교단 최고형인 출교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제2, 제3의 유사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기감 동대위의 결단은 제 살을 돌려내는 아픔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동성애 확산만을 저지하겠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것이 기감 한 교단만의 절박한 몸부림일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서울 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축복식을 진행한 목회자는 30여 명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기감뿐 아니라 통합 등 주요 교단 목회자가 포함돼 있다는 건 가정사실이다. 기감 동대위가 '서울퀴어축제'의 동성애 축복식에 참여한 목사들은 출신 교단이 기감뿐만 아니라 다양하다"며 "기감이 동성애 축복식에 참여한 목사 6인을 바르게 처리한다면, 다른 곳도 따라올 것"이라고 한 점이 바로 그 대목이다.

기감 측이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인 지난 6월 11일 예정 통합 전남노회는 소속 엄 모 목사에게 동성애 옹호와 관련해 경위서 제출과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엄 목사가 서울 퀴어축제 때 목회자 30여 명과 함께 축복식을 한 인물로 지목되자 해당 노회가 경위 파악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동성애 지지옹호를 금지한 교단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식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 수위를 정하는 건 교단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게 돼 있다. 하지만 징계와 처벌이 능사일 순 없다.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따른 실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성하고 누우치도록 하는 계도가 중한 처벌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문제는 고의성이다. 의도적으로 반복해 저지르는 행위를 실수라며 매번 덮고 갈 순 없다. 동성애의 경우, 성경에 명시된 것과 다른 논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교단은 이를 기준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그걸 따르는 건 소속 목사로서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에 속한 문제다.

교단마다 현실적인 고민이 있겠지만 법과 규정을 비웃고 조롱하는 행위를 언제까지나 감쌀 수만은 없지 않은가. 처벌이 능사일 순 없지만 도려내야 할 환부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온몸에 병이 퍼지게 할 수는 없다.

영적 기회



성종근 목사
타코마 반석장로교회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부흥성회입니다. 그러나 달갑지 않습니다. "귀찮게 무슨 잔치야?" 이 시대는 예수, 교회, 천국을 시대에 뒤떨어진 단어와 종교 행사로 매장하려고 합니다.

천국 잔치는 어떤 사람에게든 새 인생을 살게 하고, 영원을 바꾸는 복된 순간이 됩니다. 기회는 만드는 자에게 옵니다. 생수가 있어도 마시지 않으면 목마릅니다. 은혜가 있어도 받

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도 내 것이 되지 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은 끝맺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욕적으로 붙잡은 것들이 많아 영이 갈급하지 않습니다. 바벨수록 기도해야 하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고, 지혜로울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부흥성회를 참석할 기회가 있을지? 또 이번에 만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는 천국의 잔치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영적 은혜의 기회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뭄에 비가 내려도 독을 쌓지 않고 틈을 메꾸지 않으면 다 흘러가고 맙니다. 믿음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언행은 본인에게 큰 손실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의 자리에 겸손하게 사모하며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전환점이 되는 성령 충만한 영적 기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곧 만납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되기 소원합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거룩한 복된 잔치에 초대합니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내선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6085-8166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2-6082-8165
 구독신청 대표구좌 능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 1장 칼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하는 성경여행서!



성경의 모든 장을 칼럼으로 저술했습니다. 성경 내용이 이해되고 계속 읽혀집니다. 정통 신학과 교리에 충실하고 적용이 탁월합니다. 경건을 갈망하는 크리스천이 기다려 온 책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에게 권요합니다. 말씀사역자의 평생 자료로 사용됩니다.

저자 | 김명제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예담교회
발행 | 하우출판사 (온오프라인 판매) (각권 484면, 권당 24,000원)

온라인 판매처 | 알라딘 YES24 영풍문고 KYOBO 교보문고

- 제1권 창세기-룻기
- 제2권 사무엘상-욥기
- 제3권 시편-이사야
- 제4권 이사야-마태복음
- 제5권 마가복음-요한계시록

NAVER 성경 1장 칼럼 검색 | 성경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책을 펼쳐라 - 교보문고-

네이버검색 인천이룸교회하나님병원 기독교신문뉴스 이명호목사간증



매일오후1시집회 한국에없는지역입니다 악한영결박치리할능력 이목사에게만 임하였음 어떤병도났습니다

최모산 목사

유튜브검색 인천이룸교회간증

통변 음성영안투시 능력사모하는분 와보라 만수역1번출구앞 사역자공격당함 제거 전화상담치유 010-5612-4220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향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 생수같은 말씀
- 강력한 축사
- 우울증해결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향의 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회장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청주시 상당구 교회매매

주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구말길 47-1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리(가지기) 229번지/ 229-1번지(지번)

면적
*대지-264(평) / *토지-258(평) / *총면적-522(평)
*사택- 28(평) / *교회-46(평)

매매가격: 2억5천만원

<매물장점>
1.청정지역입니다
2.교회,기도원,수련원,요양원, 전원생활지로 최적입니다.

연락처 ☎010-5622-8240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made in NORWAY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이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종 기능성 건강 기능식품

- 원활한 혈액순환!
-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 항산화 건강까지
- 하루 2캡슐
- 고품질 노르웨이산
- 하프물개 오메가3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성경적 상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성경적 상담의 길잡이'

기독교 상담과 성경적 상담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둘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상담은 심리학을 수용하거나 이용한다. '통합 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성경과 심리학을 통합하여 더 풍성한 상담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말이다. 반면, 성경적 상담은 심리학을 배척한다. 심리학 분야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의미한 통계를나 연구 결과를 모조리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해석하는 심리학의 틀, 그러나 세속적인 세계관을 배척한다.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전부라고 보는 관점과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타고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보는 관점은 아무리 애써도 통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성경적 상담을 가르치는 주요 학교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과 마스터스 신학대학원, 국내에는 총신대학교 정도가 있다. 주창자로는 제이 아담스를 시작으로 데이비드 폴리스, 에드

웰치, 히스 램버트, 존 스트릿, 스투어트 스캇, 폴 트립 등이 있다. 또한 핵심 기관으로 CCEF와 ACBC가 있는데, 로렌 휘트먼은 CCEF에서 JBC(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의 개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경적 상담 상담사이자 교수이다. <성경적 상담의 길잡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적 상담 과정의 실제>는 성경적 상담 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도록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CCEF 기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저자 로렌 휘트먼은 독자에게 성경적 상담이 어떻게 내담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성경적 상담 과정의 초기, 중기, 종결기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보여준다. 이미 국내 소개된 많은 성경적 상담 관련 번역서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정밀한 입문서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성경적 상담이 이루어질 때, 각 회기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스스로 또는 내담자에게 해야 하는지,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며, 언제 종료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의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완전히

공감한 사람들도 실제로 성경적 상담을 실천하려 할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휘트먼은 그런 독자에게 성경적 상담의 실제적 과정을 알려주며 이는 매우 유용하다. 히스 램버트는 <성경적 상담의 핵심 개념>이라는 책에서 성경적 상담의 개척자인 제이 아담스에게 부족했던 점이 내담자의 고통에 관한 충분한 공감이라고 했다. 휘트먼은 성경적 상담의 1회기와 2회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말한다. 공감은 상대의 죄를 덮어주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다. 그녀는 공감을 이렇게 정의했다: "공감은 '나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당신을 봅니다. 예수님이 당신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도 당신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경험, 그리고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29p). 하지만, 공감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식이다. 문제 해결은 내담자가 성경을 통해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로 보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 합당한 감정, 올바른 의지를 갖도록 돕는 과정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기쁘하시

는 뜻, 온전하고 거룩한 길을 제시한다. 그래서 상담가는 성경으로 내담자에게 올바른 해석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휘트먼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상담의 초기, 중기, 종결기에 실제로 상담가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제공한다. 실제로 성경적 상담의 과정을 겪고 있는 독자는 이 책을 통하여 자기가 실천하는 상담이 올바른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상담에 관하여 막연하다는 느낌을 가진 독자 역시 이 책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성경적 상담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운 이들도 한국에 와서 여러 심리 치료 자격증을 획득하여 전문성을 나타내려 하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심리학적 관점을 알게 모르게 수용하거나 상담 과정에 반영할 때가 많다. 많은 경우 어떻게 성경적 상담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오직 성경이 우리가 겪는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다면, 다시금 진짜 성경적 상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일에 휘트먼의 이 책이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나는 이 책을 성경적 상담학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한다. 조정의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유평교회

7월, 작가들의 말말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그분의 존재를 더는 의심하지 않게 된다. 왜 악한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시는지 질문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분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각 사람을 변화시키심을 기억하게 하신다. 언젠가 하나님은 그 고난의 상황을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당한 고난의 상황을 낙담하지 않게 된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인간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모두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한다. 그래야 그의 이름을 함입해 생명을 얻게 된다.

스티브 강 '그리스도인이여, 믿는 이유를 확실히 알라'

주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막에도 깊은 골짜기에도 홍해에도 길을 내신다. 인생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해도 주님은 이미 나갈 길을 다 알고 계시기에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틀릴 수 있다. 때로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가기도 한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노라면 한치의 실수도, 오차도 없이 가려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그 빛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생길을 고속도로처럼 신나게 달리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기대하시며,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느 것 하나 빠트리지 않고 준비하신다. 모든 것을 예비해두셨다가 우리 각자의 필요를 따라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란 말인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늘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정성훈 '말을 건네 오시는 아예'

교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마음에 짓눌림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먼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라고 요청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이 홍해에서 행하신 이적과 텅 빈 무덤을 기억하고 믿음과 기대감으로 충만해야 한다. 심호흡을 하라. 모든 스트레스를 그분의 발아래 내려놓으라. 지금 목격하는 교회 모습과 성경에서 읽은 교회 모습의 차이에서 느끼는 혼란을 주님께 아뢰라. 생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힘들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라. 프랜시스 찬 '교회의 부름'

내 의에서 넘어지고 말씀 순종으로 넘어서다

신간 '넘어진 제자훈련 넘어서기'

책 '넘어진 제자훈련 넘어서기'의 저자 김대조 목사(주남기쁨의교회 담임)는 모든 걸 쏟아 헌신했던 제자훈련 현장에서 구멍이 난 자신의 제자훈련 그물을 발견하며 제자훈련 목회 현

장의 실상을 생생히 전달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훈련을 마친 훈련생에게 달아주어야 했던 것은 '이제 당신은 멋진 지도자입니다'라는 자랑스러운 훈장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죄인 됨과 약한 제자임을 잊어

버리지 않게 도와주는 장치였다"라며 "여전히 틈만 나면 우리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교만, 자기의 인정받음, 자랑 등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장치(죄패)는 우리를 그러한 죄로부터 경계해 늦추지 않게 해주고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자훈련은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는

훈련이 되고, 훈련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옥한흠 목사님은 평신도를 훈련하면서 방향 없이 허공을 쳐서는 안 되며(고전 9:26) 세상으로 보낸 받은 평신도를 어떤 목표와 표준에 따라 교육하고 훈련시킬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전략적인 가치가 바로 적용 훈련임을 밝혔다"고 했다. 최수원 기자

신간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

독일 노인학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를 실제 연령보다 어리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 저하가 천천히 일어났다. 이는 나이가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임을 드러낸다.

책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는 나이 들수록 적극적으로 잊어버리는 힘을 발휘해 삶에 소중한 것만 남기라고 전한다. 저자인 가마타 미노루는 도쿄의대 출신 노년 내과 전문의이자 75세 현역 의사다. 저자는 "잊는 힘이야말로 인생 후반에 꼭 필요한 능력"이라며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한

다고 강조한다. 또 "세상의 기준과 불필요한 의무감-인간관계, 획일적인 수치에 매달리는 건강 관리법은 잊고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를 채워야 한다"고 말한다.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데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걱정이 많은 분들은 '실마 치매인가?'하는 조바심에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몇 가지 해보면 그 나이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건망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괜찮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면 환자는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19쪽) 조수원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경교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원 목사 (양천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날 새를 함께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 (1)

에드워즈의 일기는 에드워즈가 만 20세가 되기 전, 약 5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기록한 53일 분량의 일기 내용이다.

스무 살 청년 에드워즈의 5개월 동안의 삶의 기록이요, 신앙고백이며, 삶의 실천 내용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53일 분량의 일기 가운데 13일이나 결심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에드워즈는 일기 속에서 결심문을 작성하고, 결심문을 수정하고, 결심문의 순서를 바꾸어 배치하고, 결심문의 내용을 실천한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서 분발한다. 에드워즈의 70가지 결심문은 1723년 8월 17일에 끝난다. 이날의 일기는 이렇게 적혀있다.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유익 된 것이 담겨 있도록 하자”

그리고 70번째 결심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 유익이 되도록 하자”.

에드워즈의 일기 내용이 곧 결심문의 내용인 셈이다. 다시 말하면, 에드워즈의 일기는 에드워즈 결심문의 확대판이요, 에드워즈의 결심문은 에드워즈 일기의 축소판이다. 에드워즈가 일기를 쓰는 목적은 자신의 결심문을 만드는 삼정과 동일한 것이다. 결심문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에드워즈의 일기는 곧 결심문을 기록하는 과정이 되었고, 그리고 결심문이 완성된 다음에는 결심문을 지키기 위한 자기반성의 수단이 되었다. 스무 살 에드워즈의 일기를 읽노라면, 다시 한번 영적 거인 에드워즈의 면모를 확인하게 된다. 영적 거인이라 다른 아님,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만들어진 영적 전성 영웅이다. 그래서 스무 살 에드워즈의 일기 속에 한 영적 거인, 영적 전성 영웅의 기록해지기 위한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신 속에 있는 죄악과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의 드라마를 박진감 있게 볼 수 있다. 에드워즈의 일기는 에드워즈의 영

적 전투의지를 보여주는 그의 결심문이며, 그의 자기 반성문이며, 그의 영적 전투 현장 기록인 것이다.

1723년 5월 1일 수요일 점심 전 세상을 떠나 천국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방법

우울하게 뉴욕을 떠나온 후 어젯밤, 집에 도착했다. 내가 여기서 겪고 있는 다른 모든 상태에 대해서 언제나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들은 내가 의도하는 다른 삶인 상태보다 더 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바꾸었을 때,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다. 그러한 상태의 어려움 들은 내가 지난번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주님, 저의 생각과 감정과 소원과 기대들을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천국에 고정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곳은 총명한 기쁨이 있고, 불순물이 없는 천상의 달콤하고 부드럽고 고요하고 기쁜 사랑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랑이 가장 충만하게 표현되는 곳이며, 부족함 없이 이러한 사랑을 즐기는 곳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는 사람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사랑스럽게 보이며 또한 우리에게 총명한 사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어린양을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달콤할 것인가? 이러한 즐거움, 이러한 달콤함이 절대로 중단되거나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지! 여행이나 이동이나 삶의 상태가 바뀐 이후에는 잊지 말고, 그러한 조건에서 내 영혼을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자.

1723년 5월 2일 목요일 오후

자연 속에서의 묵상과 꿈의 분석이 주는 유익(프로이드의 꿈의 분석에 대한 통찰력을 이미 가지고 있음)

내가 뉴욕에 있을 때는 그리고 내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을 때는, 나는 고향에 있는 들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고향에 있는데 뉴욕에 있을 때 자주 거닐던 들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깬 때마다 꿈을 조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꿈속에 들어있는 나의 상상적인 행동과 감정의 본질, 환경, 원리,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지배적인 성향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1723년 5월 4일 토요일 밤

나쁜 성격을 고치고, 좋은 성격을 함양

비록 어느 정도는 투덜대고 조바심 내는 성향을 억제해 왔지만, 성도의 부드러운 기질과 대화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성향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있다. 너무 독단적이거나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다. 이것은 내가 싫어하거나 꾸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경향이며, 또한 내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결함과 다른 많은 약점들과는 무관한 무죄하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한 경향 때문이다. 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내 기질과 대화의 모든 약점과 결점을 발견하게 해 주시길 빈다. 또한 나를 도우사 약점 들을 고치는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총명한 생명력을 주셔서 그 모든 받아들이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것들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반대로 부드러움과 아름다움들이 저절로 따라올 수 있도록 되기를 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선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일서 2:15-16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하지만, 요한복음 3: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지상과 물리적인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2; 요한복음 1:31) 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간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마태복음 18:7; 요한복음 15:18; 요한일서 4:5).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요한일서 4:9).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로마서 13:8; 요한일서 4:7; 베드로전서 1:22). 선한 사마리



인인의 비유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취사선택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누가복음 10:30-37).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을 때는 성경은 세상의 부패한 가치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것과 대비되는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고린도후서 4:4). 요한일서 2:15는 사탄의 체제가 권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는 이 세 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투, 간음, 교만, 거짓, 이기심 등 모든 죄가 이 세 뿌리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사야 55:7은 하나님께로 오는 데에는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존 번연은 자신의 책 천로역정에서 신자의 처지를 “눈은 하늘에”, 손에는 “가장 좋은 책” 들고, “자신의 뒤에 펼쳐진 세상” 앞에서 있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34쪽).

세상은 종종 죄에 환호를 보냅니다. 연에 매체는 우리가 죄인들을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게도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사람들”과 비교하게 합니다(잠언 23:17 참조). 종종 “스타”들의 유명세는 그들이 우리가 각자의 삶에 얼마나 불만족하게 흠들어 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광고업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저 구해야” 합니다(마태복음 6:33).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마태복음 6:24).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타락한 삶의 방식(고린도후서 5:17)에서 빠져나올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왕국의 시민이 됩니다(빌립보서 1:27; 3:20). 우리의 소망은 하늘을 향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보화를 쌓아두게 됩니다(누가복음 12:33; 디모데전서 6:18-19).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길 깨닫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저해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 버립니다(마태복음 3:8; 누가복음 6:43-45; 요한복음 15:1-8). 요한복음 12:25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들로 같은 생각을 더 깊게 설 명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우리도 예수님께 아무 가치 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0:37-38).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사탄이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체계를 가리킵니다.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우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두신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타는 욕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10:31).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고린도전서 10:7, 14).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 하나님과 경쟁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경계해야 합니다.

킵스스스스 제공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 선착순 500명 한정!]
※ 증정품 선착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화의 진향 정성, 광동 쌍회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론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강지윤 칼럼 인간 존재의 가벼움 혹은 존귀함에 대한 묵상



강지윤 박사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어 경상을 입은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간 다쳐서 혼자서 걸어 다닐 수도 있었는데, 그 아이를 끌고 가 기어이 죽여서 계곡에 유기한 그 끔찍한 사건 때문에 며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지 음주 무면허 운전이었던 것을 들킬까봐, 다시는 면허를 따지 못해 생계에 지장을 줄까봐, 그 처참한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차에 탄 채 끌려가면서 공포를 느꼈을 그 아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총을 쏘려고 할 때 분명히 살려달라고 외쳤을텐데, 짐승같은 범인은 그 불쌍한 아이를 개의치 않고 총을 쏘았겠지요.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지면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사건도 아닌데,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파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또렷하게 장면 장면들이 그려

지면서 더욱 심장이 아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미치도록 마음이 아픈가, 내안의 무슨 역동이 이 사건 앞에서 먹을 수도 잘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일까, 그저 한 인간으로서, 혹은 한 엄마로서 안타까워하거나 조금 슬퍼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가슴이 쓰라릴 정도로 아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 아이 엄마와 나 자신을 동일시했거나 감정이입을 했던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뜬 그 아이를 보니 우리아이와 많이 닮아있었고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힘들게 만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엄마의 찢어지는 마음을 생각하면 이 땅의 한 엄마로서 것이 공감하며 같은 심정으로 울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둘째는 육이 나을 만큼의 역겨움을 느



졌기 때문입니다. 그 잔인한 한 인간에 대한 혐오와 증오심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이도 없는지, 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한 지,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놈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과격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내 앞에 있다면 그 아이

대신 복수하고 싶을 만큼의 이런 분노가 제 마음 한 편을 더욱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셋째는 나의 상처를 건드리는 인간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중상을 입어 정신이 없는 상태가 아닌 그

조그만 아이는 멀쩡한 정신으로 차에 태워진 채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려가면서 극심한 공포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나의 추축일 뿐, 실제로 그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존재를 가볍게 만들어 버리고,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이 사건 속에서 무수히 많은 상처입은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지도 모른 채 수많은 언어와 행동으로 타인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마침내 한 아이를 죽이는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너무나 귀한 존재로서 사랑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떤 경우에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

람이란 그토록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지함과 잔인성이 오랫동안 길러져 자기중심적이 된 인간은 내 옆의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 끔찍한 살인자도 예전엔 상처입은 피해자였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용서하기 힘든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공포에 질려 울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 아이의 이미지가 떠올라 마음이 부서져 내립니다. 그 이미지는 나의 상담실에서도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그렇게 매달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 아련한 아픔의 기억 속에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아, 이 땅에 언제쯤이면 이런 악독과 슬픔이 다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마음이 상한 사람이 다 사라질 수 있을까요, 주님.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김성광 칼럼 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돈이 사라져 우는 사람도 보았고, 돈이 들어와 웃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일푼에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자에게는 확실한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때론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그들은 말의 위력을 믿습니다. 행복한 말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신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추신경으로, 그 중에서도 언어중추신경이 인간의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행동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말은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좌우됩니다.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또 행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불행은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말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말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말을 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말을 하고 부자는 부자의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지만,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에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입 안에 있을 때는 어떤 말이든 상관없이 없지만, 입 밖으로 나오면 그 말로 인해 구설에 오르고, 망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말씀대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을 통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부자가 되게 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씨앗처럼 뿌려 놓으면 환경을 통해 축복과 부요가 자

라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환경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가난해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돼요", "빛 때문에 살 수 없어요"라는 말을 하게 되면 실제로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가난하고, 환경에 지배를 받으며,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행편이 어렵습니까? 물질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는 이미 부자가 되었다"고 입술로 선언하십시오. 부자의 씨앗을 자신의 삶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실천 신학자인 D.S.브라우닝 박사는 '큰 꿈, 큰 비전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에는 나중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늘상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하십시오. 이때 재물이 존귀함도 내게로 다가

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믿음도 있고, 재물을 얻는 재주도 있고, 마음도 넓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 남편과 사니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희망이 넘칩니다. 나는 복 받은 여자입니다."

"내 아내는 요리도 잘하고 믿음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너그럽습니다. 그 아내와 사는 나는 행복이 넘칩니다. 날마다 사는 맛이 납니다."

이렇게 말의 씨를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녀에게도 "나는 부자로 살 사람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부요하게 된다.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부자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데일 카네기는 "성공한 사람들은 '없다', '없었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잘 되는 말만 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부자의 말로 철저히 무장한 부자가 행복한 부자입니다.
故 김성광 목사

은혜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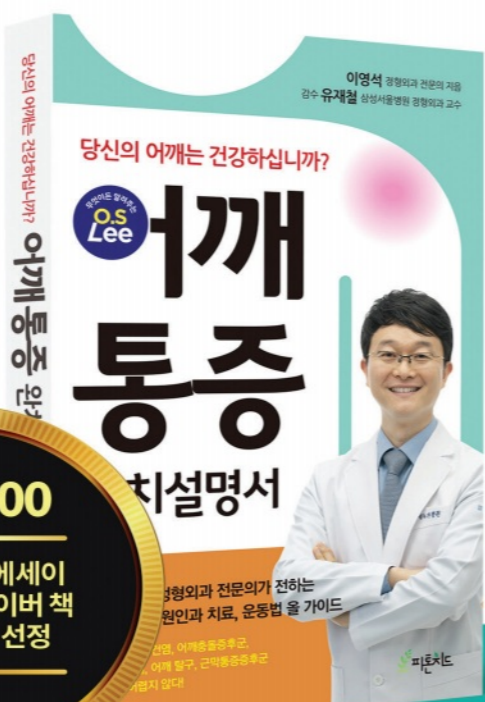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15

基督日報
기록일보 www.cdaily.co.kr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 가정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름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옛 자아의 모습이 튀어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쓴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으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는 좋아도 교인들은 안 좋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교회가 출발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 들려온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고민을 하는 성도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일에, 이 문

제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이 책은 오래전에 Charles M. Sheldon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소설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책이 성경적으로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신앙인으로서 고민을 한 번쯤 해 보도록 하는 것에는 절대적인 힘이 있어 수천만 부의 판매기록을 세웠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런 생각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 변화를 추구하시는 하

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출발점은 바로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과 가르침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을 바치거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신앙의 가치를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가진 것들이 존재하는 의미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바로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외면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절대적으로 놓지 않으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명심한다면,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강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이 원하는 '답정너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당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살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아닌, 참된 이름을 얻었습니다. 비록 우리 안의 죄성과 연결되어있는 각 사람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 살아있어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21세기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어느 목회자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삶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킬 진정한 말씀의 능력에 불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결단의 문제인 셈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마귀는 더욱 힘을 얻어 교회를 교회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교회오빠

아그립바 왕의 반응

오늘의 말씀 / 사도행전 26:19~32
오늘의 요절 / 사도행전 26:32

바울은 많은 관리들이 둘러선 가운데 아그립바 왕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1.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19~23절)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20, 23절) 그것은 회개와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회개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

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의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혹은 이것이 부족하여 실패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 삶을 위한 목상 : '의인 의식'을 교회 뿐 아니라 직장과 가정 속에서 어떻게 발휘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2.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24~29절)
베스도는 바울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미친 것으로 단정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일견 당시의 지위와 권세가 있는 총독의 말이니 받아 들일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의 말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베스도가 안타깝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성경은 바울의 말이 옳았음을 증거해 줍니다. 나는 사람의 지위와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까? 아니면 그의 진실한 말을 보고 판단합니까?

♣ 삶을 위한 목상 : 선입견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바른 판단이나 말을 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진리를 위해 정직 하십시오.

3. 바울의 무죄(30~32절)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관리들은 바울

에게서 사형은 물론 결박당할 일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무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혹은 '만일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놓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바울이 실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선택으로 복음이 로마로 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합당한 곳으로 이끄시고,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 삶을 위한 목상 :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과 인도에 순종합니까? 혹시, 거부하면서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하지는 않습니까? 창골산 봉목사

성경상식

용서받지 못할 죄(unpardonable sin)

예수의 어록에는 없다
성서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는 성령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을 가리켜 '영원한 죄'라고 말했다(마가복음 3:22-30). 그리스도교도들은 오랫동안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사실 예수의 의도는 명백하다. 그는 사탄과 결탁했다는 혐의로 적들에게서 고발을 당했다. 사탄이 그에게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

다는 것이다. 예수가 말하는 신성모독이란 바로 신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오도하는 죄다. 선지자 이사야도 똑같이 말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 제(이사야 52:1)"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물론 예수가 말하는 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가벼운 농담이다. "내가 싫어하는 분홍색 옷을 입다니, 용서받지 못할 죄야!"
들녘 출판사 제공



향유욕합

고흐의 자화상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 대하여
다 알 수 없는 미궁을 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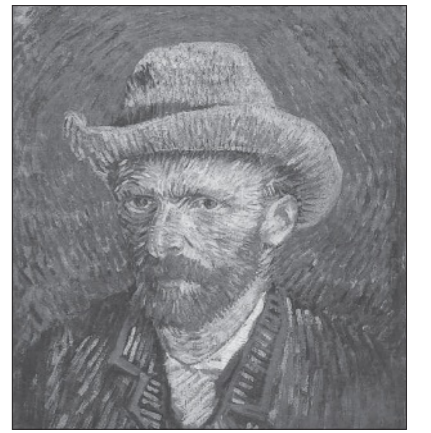
그리고 그 배후엔
두 눈을 바로 뜨고 대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

이런 점에서 고흐는 무서운 존재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대면하고 있으니.

어떻게 고흐는 이토록 강렬하게
자신을 대면할 수 있을까

고흐는 고크로서 존재하고픈 열렬
함

열정적인 자기 사랑
이것이 자기 폭로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실로 위험한 일이다.



누구나 옷을 입고 살아가려는데
홀로 옷을 벗는 용기는 위대한 것
이다.
삶의 안전핀을 뽑은 것이다.

고흐는 안전핀을 뽑고
존재의 지뢰 미확인 지대에서
춤을 추었다. 신마루서신 제공

이야기하늘나라

수의사와 짐승

영국의 어느 장관이 의회에서 국민 보
건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그때 한 의원이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장관은 수의
사 출신 아니요? 수의사가 사람의 건강
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
는 거요." 엄청 치졸한 인신공격이다. 모든

의원들의 시선이 연단으로 쏠린다. 그러
나 장관은 의원의 급승에도 아랑곳없이
이렇게 답변했고 그 순간 의회는 온통 웃
음바다로 변해 버린다. "네, 저는 수의사
입니다. 혹시, 아다가 편찮으시면 아무 때
고 찾아오십시오." 예수님닷컴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생명의 찬양



이선종 목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내 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시 63:4)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동시에 아주 쉬운 일이다. 인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나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여유에 있으면 인간의 마음은 이러한 갈급한 영혼이 되지 않는다. 그제 인간이다. 그리 갈급하지 않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쉬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 인간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은, 이렇게 인간의 결핍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므로 주의 인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

라 인간은 문제의 해결 뒤에 계신 더 큰 선물인 하나님의 현시를 목격한다. 다윗은 풍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경우 갈급한 심장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사람의 경향은 절박한 가운데 평소에 찾지 않던 신을 찾는 게 일반적이지만 다윗은 물론 황망한 광야에 처해지긴 했으나 부하가 있는 장수였고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궁전이 있는 왕이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까지는 평강이 없다고 여긴 것이다.

다윗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한 것은 그가 여유롭고 평안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스스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이 우리나라 찾아갔다 한 것이요, 주가 잠재해져 전부터 그의 존전에서 경외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한 마음이다. 주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값보다 더하다고 고백한다. 자기 존재의 값보다 그의 사랑이 훨씬 값고 심오하고 강하다고 고백한다. 그가 평안할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한 이유이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인지 점검할 만

하지 않은가? 어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본 사람이다. 만약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고통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다윗이 본 하나님의 인자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시인이 갈급하여 생명보다 나는 주의 사랑, 이를 찬양하는 자의 마음에 일어난 가슴 벅찬 기운을 보라. 시인이 비록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간절히 찾아야만 하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있는 처지이나 주의 영광을 가이로 보고야 말았다. 지금 고단하나 하나님을 보았다. 그것이 면 죽는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지 않으셔도 된다. 나를 보고 있음으로써 그 모든 것은 온전하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소에 찾아왔다. 하나님은 자신이 찾으면 언제든지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다.

살롬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명령함!

평강하라, 자유하라, 생육하라, 누리라, 사랑하라, 만경하라,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언제나 특별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늘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것은 분명하다. 주께서 오라전부터 아주 특별히 사랑을 주시는 자녀들에게 세상은 그들을 결코 좋

아할 리 없는 그 삶의 이수룩함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마어진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신다. 단 한 번에 커다란 파도의 방향을 바꾸어 줄 아주 긴박하고 또렷하게 확신으로 이르시기를, "아 000야, 나는 너를 마음 터지게 사랑한다." (자기 이름을 넣어 불러주세요)

그렇게 우리 모두 가슴 터지게 일어난 그 날이 온다. 그제 오 나의 찬양(감탄)의 찬양이다. 일반적인 자연의 오묘함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 그러나 특별한 사랑으로 역사의 분기점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커다란 시련과 환난을 통해 이 땅 가득히 주님의 나라로 채우는 나날 속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가야 한다.

사실 주님은 매일 고통당하신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큰 세계와 아름다운 평강을 주시기 위해 작은 고통을 허락하시기 때문이고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신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환난과 세인의 풍요가 극에 달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이 지나치고 고여질 때, 그 때를 앞당기시기도 하신다. 찬양하는 자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

았을 때, 그는 찬양한다. 이게 찬양이다. 오, 주님 나의 찬양을 주께 올립니다.

당신이 오직 주관하는 그 날에 부를 찬양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호흡, 그리고 주께서 차리신 그 아름다운 식단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진미가 놓여 있을 것이다.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찬 무리들의 그 아름다운 노래와 아름다운 마음과 빛나는 영혼을 누릴 것이다.

찬양하는 자들에게 단지 한 가지의 무가 있었다면 풍요로울 때도 주의 임재가 그리워 성소에 찾아간 것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그 예배의 처소에 찾아간 것이다. 그 후에 안 일이지만 그는 그 성소에 가서 죽을 수도 있었다. 그의 고백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잃을 생명을 지나갔다. 그는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것을 알게 된다. 그의 깨달음은 생명을 걸고 진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현시 앞에 섰다. 무죄선고도 없었다. 그는 죽을 수도 있었다. 하나님은 그가 무죄하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그의 사랑으로 덮으셨다. 그리고 죽을 수 있었던 자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려내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끝내 알고야만 한다. 이 두 존재의 사랑은 오직 기도와 반응으로 나타나지만 찾아간 자의 생명은 되돌려

받고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게 된다.

위 논리에 의하면 찬양은 자신의 풍요한 상황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고함을 여전히 추구하여 일어난 자기 부정과 무모한 자기 버림을 동반하여 성소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큰 반응인 인자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다.

찬양은 노래하는 것이지만 삶에서 살아내며 얻어지는 깨달음의 영이요 또한 그 한가운데 여전히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이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찬양은 선지의 영이다. 언제든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내 열납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 이선종 찬양 예배자 시편 번역, 스가라 번역, 찬양곡 번역, PTSA Th.m 수료, KPCA M.dv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cm 서울대 졸업.

찬양의 능력 2



저드슨 콘월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가 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다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의 찬양 가운데 들어오도록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속한 부분이 하늘에 속한 부분의 찬양에 연합되는 것이다. 그렇게 연합되는 교회는 주로 예배와 찬양을 하며, 자신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분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공의를 이해하게 되고, 복수를 이해하게 되며 곧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주 되심을 이해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하지만, 그들은 사실을 찬양한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찬양하지만 그들은 영으로 찬양한다. 우리는 사람의 교훈을 받지만 그들은 천사들의 교훈을 받는다. 우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들에게는 한계가 없다.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두 무리 사이에는 결코 유사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 하늘의 무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하며, 땅의 무리가 이 삶의 경주를 계속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고 말해준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중에 우리의 감정 수준이 심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게 하시며 하늘의 무리들과 찬양 가운데 연합하게 하신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천사들과 완전해진 사람들의 영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우리 입에

하나님의 높은 찬양이 있게 하는 찬양에 대한 화답으로 영광 중에 하늘과 땅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때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고 연합하게 될 때, 하늘과 땅의 성도들이 교감할 때, 늘 사용하는 동일한 단어로 찬양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은 더 순전하고 강하며 더 적절한 지시를 받는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흐름, 새로운 신앙의 깊이와 새로운 권위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번역본에서는 이 높은 찬양이 우리의 "입에 있게 된다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그들의 목"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뇌가 아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 7:38)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높은 찬양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목에 있다는 뜻이다. 혀가 의식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초의식) 어떤 찬양은 의식적인 마음의 수준을 넘어서는데 이는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영감을 주신 결과이다. 마치 영이 찬

양을 하는 것과 같다. 이는 혀로 찬양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만의 언어로 찬양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우리의 지성이 우리 목소리의 화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찬양을 표현하도록 지시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천국의 "높은 찬양"을 우리의 입에 흘려보내 주시는 것이다. 이럴 때 찬양은 우리의 표현 방법일 뿐 아니라 무기가 된다. 이 얼마나 멋진 무기인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었다"(시 149:6).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순서를 결코 바꾸지 말라. 입에 있어야 할 것은 찬양이지 검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입에 검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성도의 입에 검이 있다고 하는 본문은 없다. 검은 성도의 손에 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이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적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입에 있는 검으로 싸우려할 때 우리는 상처를 입히고 나누고 죽일 뿐이다. 다른 관

점의 '증거 본문들' 혹은 '소그롭 모음에서 성경 말씀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잘못된 관점을 심어주어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높은 찬양을 풀어 내는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서 말씀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경은 손에 쥐고 있거나 우리에게 잘못된 관점을 심어주어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높은 찬양을 풀어 내는 것이다!

◆ 저드슨 콘월

Judson Cornwall, 1924-2005,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모든 영역에 탁월하게 적용하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그는, 매우 존경받는 선생이자 작가이다. 30년간은 개교회의 목사로, 12년간은 여러 집회와 사경회 등의 강사로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등 거의 50여 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해왔다. 그는 평생의 사역기간 동안 50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이 중 많은 책들은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어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기독교 잡지와 정기간행물 등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 이설아 옮긴이

성신여자대학교와 한동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삼성전자, SDS 등에서 인하우스 번역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프리랜서 전문 통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한일장신대, GOODTV와 산학협약 체결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미디어 선교사업에서 상호 협력 강화

한일장신대학교(총장 배성찬)는 최근 기독교복음방송 GOODTV(대표 김명전)와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GOODTV 서울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김명전 대표이사과 정예현 호남-전북본부장, GOODTV 임직원들, 한일장신대 배성찬 총장과 최영현 기획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일장신대와 GOODTV는 기독교 복음 전파를 위한 미

디어 선교사업과 행사 기획,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명전 대표이사는 “102년 유구한 전통이 있는 진취적인 대학 한일장신대와 산학협약 체결을 하게 돼 감사하다”며 “전북 뿐만 아니라 한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이에 배성찬 총장은 “그동안 우리 대학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온 GOODTV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기쁘다”며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된 양 기관이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인재 육성과 복음 전파활동을 통해 상호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한편, GOODTV는 1997년에 설립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 방송 채널 중 하나로, 국내 최초-최대 기독교 인터넷방송인 C3TV로 시작하여 현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주일 시



산학협약 체결 기념 사진(왼쪽부터 김명전 대표이사, 배성찬 총장) ©한일장신대

창를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3만여명의 글로벌 방송선교단과 인터넷 포털 뉴스인 Daily GOODNEWS, 주간지인 Weekly GOODNEWS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도사회화 홍자 작가, '알갱이-풍경이 되다' 개인전

작은 조각으로 시작되는 세상

작은 도자기 조각들로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구현하여 도사회화의 예술장르 범위를 확장시킨 홍자 작가. 그가 7월 1-30일 강진아트홀 전시실에서 '알갱이-풍경이 되다' 타이틀로 전시를 진행 중에 있다. 흙이라는 미세한 알갱이로 출발해서 작은 도자 조각으로 작품의 소재가 만들어진다.

제작된 도자 조각은 풍경의 일부가 되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일들의 기억과 추억으로 회상되며 덧붙여져 화면 속 이미지는 감성이 풍부해져 전체적 작품의 느낌이 따뜻하다.

작품 속 작고 네모진 알갱이는 가마에 구워져 나왔기에 미묘한 색깔과 크기의 차이를 갖고 있으며, 비슷한 듯 다른 알갱이는 우리 삶과 닮아있다. 그래서 알갱이는 각각의 삶에 대한 조각과 시간으로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다.

미묘하게 다른 작고 네모진 알갱이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구성하고 알갱이 사이와 사이를 고려하여 붙이는 행위를



작품 앞에 선 도사회화 홍자 작가. ©주최 측 제공

통해서 삶을 내면화하고 축적한다. 또한 흙과 불을 다독거리 작고 네모진 알갱이를 얻고 그것으로 화면 위에서 결합하고 구성하여 온갖 꽃으로 장식하는 화엄(華嚴)을 나타내고자 한다. 모든 사물과 풍경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작가의 관조적 심리가 작품성을 더욱 높여준다.

홍자 작가는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을 느끼며 사색하고, 꽃과 바람을 좋아하여 작품의 소재로 표현하고 있다. 작업이 안 풀릴 때는 앞이 안 보이는 곳에서 있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결국 매 순간 작업하는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내래 기자

먹방 유튜버 썬양, 월드비전에 후원금 전달



월드비전은 먹방 유튜버 썬양으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사진은 후원금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 썬양(왼쪽)과 김성태 월드비전 ESG 사회공헌 본부장. ©월드비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먹방 유튜버 썬양으로부터 1,00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후원금 2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월드비전과 썬양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부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은 썬양과 월드비전 임직원, 후원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썬양은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를 방문해 사랑의도시락 봉사 활동에도 참여했다. 썬양은 국내 결식우리아동들을 위해 도시락을 직접 포장하고 배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했다. 봉사활동 및 후원금 전달식에 참여한 썬양의 모습은 썬양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최승연 기자

아울러 썬양 채널을 후원하는 기업인 ▲더미식 ▲명륜진사갈비 ▲샘표 ▲엄마네한우 ▲프랭크버거에서도 썬양이 전달한 후원금 중 1억 원을 후원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썬양과 후원 기업이 전달한 후원금은 월드비전을 통해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사업과 국내 결식아동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40 힐링송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오늘의 찬양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강남성결(정인교) 30 TV강단 서울은혜(김태규)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장영일 목사(이치훈 목사(대구범어교회)) 30 생명의 말씀-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자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0 생명의 양식(사산성결(김형배)) 30 한소말 말씀 (류영모)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권오규 목사(계산제일교회) 50 생명의 말씀-김원태 목사(수지기쁨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수원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 50 비전설교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	30 사건 21 사시기 건드리기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주만찬 40 오늘 만나는 큐티	4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예배 30 자판기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오 자유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0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	00 복음강단 -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9:00	0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50 아주 특별한 찬양	50 말씀의 생터 아델포이교회 임동현 목사	00 가족의 축복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심소)2	10 새롬게아소서	00 우리함께 찬양해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10:00	40 바이블 프로젝트 5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20 말씀의 생터 솔로몬교회 홍성익 목사 50 스카트브래너목사의 자유로의 여정	20 에메이징 그레이스	00 CBS NEWS 10 20 잘 믿고 잘 사는 법 40 목사님 공경해요	00 힐링토크 회복 50 김윤희 목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1:00	40 Miracle Moment 50 [생방송] CTS 뉴스	20 말씀의 생터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50 GOODTV 정오의 기도	0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사건 21 사시기 건드리기	00 울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50 말씀의 창 -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김중원 목사(경산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터 전주바울교회 신현모 목사	1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00 TV강단 오병이(이권영구) 30 오직예수 (이영훈)	20 복음강단 -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믿음의 리액션
13:00	00 생명의 말씀-김성근 목사(풍성교회) 30 신앙예배 40 인생을 바꾸는 7분 - 예수가 길이다 50 Miracle Moment	00 말씀의 생터 안양생명나무교회 손명숙 목사 30 말씀의 생터 소생교회 강복렬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이계호 교수의 기쁜 회복, 건강의 회복	2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나엘 기도회	30 만나 워십
14:00	00 [생방송] 콜링갯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노크드크에 물어봐 20 세계대기행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00 말씀의 힘 우연동(정준경) 30 새롬게아소서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15:00	4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최경욱 목사(포감사선교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	00 수영로교회 새물결 새바람 NEW WAVE
16:00	30 생명의 말씀-이정익 원로목사/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말씀의 생터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회복해야 할 사랑, 전도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김형익 목사(벤살롬교회)	10 교회가는길 50 믿음의 대화 36.5	00 이석 목사의 일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생명의 말씀-강성석 목사(새에덴교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생터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 30 김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진 부흥회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50 영혼의 양식-송암(김정근)	00 말씀의 창 -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 30 Miracle Moment 40 TV찬양예배	00 비전설교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 30 마커스워십	10 한국로잔 목회자 콘퍼런스 50 이계호 교수의 기쁜 회복, 건강의 회복	00 TV강단 성남빛나는(서학복) 30 산위의마를 예배 (김영준)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30 말씀의 창 - 엘드림교회 임병재 목사
19:00	00 2023 다나엘 기도회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30 바울로부터	20 만나다 30 TV강단 두란노(이상문)	00 고통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트 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20: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30 생명의 말씀-정찬영 목사(강남중앙교회)	0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10 여주복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40 GOODTV 저녁의 기도 50 세계대기행 50 로드기행 이경의 건다보면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에메이징 그레이스	00 CBS비전특강 이음 목사의 말씀 맥으로의 초대 50 CBS 교회소식	10 비전메시지 - 기쁨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 새은혜교회 황형태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50 GOODTV 뉴스	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홍규)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	10 나의 십자가 30 제 33회 6.25 상기 기독교장령 구국성회
22:00	30 백세특강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바울로부터	00 CBS NEWS 10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3:00	00 더 메시지 50 신앙예배	10 GOODTV 시네마 누가복음 2부 4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0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20 2024 더 홀리 스피릿 2부	00 우리함께 찬양해 40 리바이츠 워십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4:00	00 콜링갯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40 힐링송 50 우리들의 지식살롱12	00 Living Life 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시즌2	10 새롬게아소서	00 마음으로 말해요 공감창고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20 세계대기행	0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4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나엘 기도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	00 말씀의 창 - 하나교회 이혁권 목사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찬양의 찬양	00 GOODTV 특별간증	20 이재훈 목사의 말씀강해(아람어자막)	30 TV강단 용인신성(이대희)	00 말씀의 창 - 퀸스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7000마라톤 예수사랑여기에 50 바이블 프로젝트	00 매일 주와 함께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울포원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박준순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스프링하우스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 50 CBS 교회소식	00 우리함께 찬양해 40 힐링토크 회복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자산관리의 특별한 솔루션

지금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신한 Premier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